

박사학위논문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형성 요인의 조절효과-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미 디 어 디 자 인 학 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마 소 욱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명광주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형성 요인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women's own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ion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hinese women's
beauty and body attractiveness-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미 디 어 디 자 인 학 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마 소 욱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명광주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형성 요인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women's own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ion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hinese women's
beauty and body attractiveness-

위 논문을 뷰티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미 디 어 디 자 인 학 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마 소 욱

마소욱의 뷰티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전 종찬 (인)

심 사 위 원 권 오혁 (인)

심 사 위 원 서 인숙 (인)

심 사 위 원 서 구원 (인)

심 사 위 원 명 광주 (인)

국 문 초 록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형성 요인의 조절효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미 디 어 디 자 인 학 과
뷰 티 디 자 인 매 니 지 먼 트 전 공
마 소 욱

여성은 오랜 인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왔다. 여성은 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가?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여성 심리의 배경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 즉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여성의 선천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인과 후천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관련한 선행연구와 관련 학술자료를 수집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중국 여성 총 700명을 대상으로 6개 영역의 60개 문항으로 된 설문을 이용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실증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88부의 설문자료를 제외하고 512부를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서로 다르게 지각한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피부나 헤어라고 여기는 여성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기고 있으며, 패션을 자신의 신체매력이라고 한 여성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더 크게 느낀다. 또한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이 얼굴과 피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반면, 몸매를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이라고 여기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중국 여성들이 얼굴과 피부에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더 얼굴과 피부에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다. 또한 자신이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며, 자신의 신체매력 요인이 후천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이 적극적이다. 이는 중국 여성들이 자신의 뷰티에 대한 관심과 뷰티관리행동에 의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즉 자신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만족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며,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활동에 대한 기대심리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여성들이 오랜 인류 역사 동안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 몸매, 피부, 패션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순위는 얼굴, 피부, 몸매, 패션 순이다. 그리고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 몸매, 피부, 패션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매력이 높아지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으로 중국 여성들이 자신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신체를 가꾸는 이유가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 자신의 자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서의 자신감과 상대적 우월감을 획득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넷째,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후천적인 신체매력 형성요인보다 선천적인 신체매력 형성요인이라고 인식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화장, 미용성형, 패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도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중국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형성하는 요인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그것에 의해 연출되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의 효과는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 여성들에게 있어서 선천적인 아름다움은 여성의 기본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의 조건이 되지만, 후천적인 화장 등의 뷰티 케어나 미용성형 등 뷰티관리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중국 여성은 미용성형을 화장이나 패션보다 더 나은 신체매력 강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자신의 신체매력 형성요인이 선천적인것인지, 후천적인것인지에 따른 신체매력지각, 그리고 그것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선천적인 요인이 후천적인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20~25세의 젊은 여성보다는 56~60세의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 기혼보다는 이혼 여성이 신체매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키가 크고 날씬할수록 신체매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체형만족도에 따른 신체매력지각은 자신의 체형 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매력을 더 크게 지각한다. 또한 체중을 줄이기 쉬운 여성일수록 신체매력지각을 더 크게 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미혼보다 이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과 높은 직위, 높은 생활수준, 높은 학력, 몸무게가 마른편 인가의 여부보다는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다.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미혼이나 기혼보다 이혼 여성이, 중소도시 보다는 대도시 거주여성이, 도시 거주보다는 농어촌이나 산촌 거주 여성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 높은 직위, 높은 생활수준, 날씬한 여성,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중 줄이기가 쉬울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다섯째,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매력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다. 또한 자신의 얼굴과 패션이 헤어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는데, 이것은 중국 여성이 신체 요소 중 얼굴의 매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는 얼굴 관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얼굴 매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은 패션을 통해 자신을 매력적으로 연출하는 감각을 발휘한다. 중국 여성의 외모관리 우선순위는 패션, 얼굴, 헤어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중국 여성이 얼굴이나 헤어 외에 패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뷰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여성 공통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다르다. 헤어가 매력적이라고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외모관리행동이 적극적이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헤어매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중국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신체매력을 발산하는 데에 있어서 헤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중국 여성 대부분은 신체매력이 클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은 조사 데이터를 제공하는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뷰티관련 업계 발전과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신체매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문제	5
1.3 주요변수 및 사용용어의 조작적 정의	6
1.4 연구범위	8
1.5 연구의 구성	9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2.1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	11
2.2 여성의 자아존중감	15
2.3 여성의 자기효능감	18
2.4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20
III. 연구설계	26
3.1 연구모형	26
3.2 연구가설	27
3.3 조사 참가자	28
3.4 조사설문 구성	28
3.5 조사 및 자료수집	29
3.6 자료분석	30
IV. 분석결과	32
4.1 신뢰도 검증	32
4.2 조사 참가자의 일반적인 사항	32
4.3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35
4.4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높이기 위한 미용성형 경험과 계획	37
4.5 자아존중감	39

4.6 자기효능감	40
4.7 외모관리행동	42
4.8 가설검증결과	43
 V. 결론 및 논의	 69
5.1 결론	69
5.2 논의	73
 참 고 문 헌	 75
 부 록	 86
부록1 한국어 설문지	86
부록2 중국어 설문지	97
 ABSTRACT	 106

표 목 차

〈표 4-1〉 신체매력 요소의 신뢰성 검증	32
〈표 4-2〉 조사 참가자의 일반적 사항	33
〈표 4-3〉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35
〈표 4-4〉 신체매력지각의 일반적인 경향	36
〈표 4-5〉 미용성형 경험과 계획에 관한 사항	37
〈표 4-6〉 자신이 한 미용성형	38
〈표 4-7〉 앞으로 하고 싶은 미용성형	39
〈표 4-8〉 자아존중감의 일반적인 경향	40
〈표 4-9〉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	41
〈표 4-10〉 외모관리행동의 일반적인 경향	42
〈표 4-11〉 신체매력 요소에 따른 신체매력	44
〈표 4-12〉 신체매력지각의 일반적인 경향	44
〈표 4-13〉 신체매력지각,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45
〈표 4-14〉 신체매력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46
〈표 4-15〉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47
〈표 4-16〉 신체매력지각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48
〈표 4-17〉 신체매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49
〈표 4-18〉 신체매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0
〈표 4-19〉 후천적인 신체매력이 미용성형에 의한 것인지, 화장 또는 패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50
〈표 4-20〉 자신의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에 따른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51
〈표 4-21〉 조사참가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신체매력지각 차이 검증	53
〈표 4-22〉 조사참가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	56
〈표 4-23〉 조사참가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58

〈표 4-24〉 신체매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60
〈표 4-25〉 신체매력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61
〈표 4-26〉 신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62
〈표 4-27〉 신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63
〈표 4-28〉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64
〈표 4-29〉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66
〈표 4-30〉 가설검증 결과	68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10
〈그림 3-1〉 연구모형	26
〈그림 4-1〉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	65
〈그림 4-2〉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	67

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의 여성들만큼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던 때는 없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사회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화장품산업을 비롯한 여성의 외모관리를 위한 뷰티살롱 등 뷰티 관련 분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미용성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뷰티 전반의 산업이 활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일까? 아름다움의 의미, 그리고 그 힘과 역할은 무엇이고, 여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또한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자신에 대한 지각은 여성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성마다 서로 다른 각각의 신체매력지각 요소들은 여성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여성들이 오랜 인류 역사 동안 자신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은 여성이 아름다움의 힘을 경험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해왔음을 의미한다.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역할과 기준, 그리고 가치에 차이가 없지 않았으나 여성들은 항상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인류 공통의 현상이었고 문화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여성 본능의 행동이라 해

도 지나치지 않다.

인류 초기, 인간의 얼굴과 몸의 치장은 다른 부족이나 동물에 대해 우월함을 강조하고 자연에 대한 숭배를 표현하는 것이었으나, 차츰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마침내 아름다움이 자신의 인상과 능력을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은 더욱 더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이며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다. 이는 곧 아름다움이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Schlenker(1980)는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를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줌으로써 인정을 받고 여성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아름다움을 가꾸는 여성 내면의 심리를 엿보게 하였다.

한편 Leary(1995)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여 오늘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 즉 아름다움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杨斌(Yang Bin, 2011)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시대발전과 함께 오늘날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필연적인 것이 되었으며, 여성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이 자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여성 자신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이상적인 방법이며, 개성과 능력을 키우는 창조적인 가치 세계로서 여성의 삶의 의미와 생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李英华(Li Ying Hua, 2020)는 여성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 확고한 집착에 가까운 욕구를 갖고 있으며 여성이 아름다움을 잃는 것은 심리적 공포이므로, 비즈니스를 하는 여성이든 가정

주부든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쫓는 여성 심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것이어서 뇌과학, 행동경제학, 인간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총동원(혼마다쓰헤이, 2021)해야 하는 일반 상품 소비심리 이상으로 여성의 미묘한 본능을 간파해야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를 밝혀내는 것은 그야말로 여성의 심리적 욕망, 즉 여성의 원츠라고 할 수 있는 시크릿 코드를 찾아내야 분석이 가능한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홍성태, 2014)

林晶晶(Lin Jing Jing, 2013)은 최근 들어 여성의 미용성형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이 미용성형을 거의 의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용성형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여성들이 미용성형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바꾸려고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미용성형을 여성이 화장이나 패션을 선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력증진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외모 중시를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여성 자신을 차별화시켜 나타낼 수 있는 매력적인 힘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아름다움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미용학, 의류학, 광고학, 마케팅학, 사회학, 심리학, 소비자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용분야 연구 대부분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개괄적으로 검증하거나, 여성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이 외모관리나 뷰티 서비스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하는 것에 그쳐 있었다.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여성이 원하는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고 뷰티 서비스도 가능하며, 새로운 뷰티 비즈니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내용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늘의 여성들은 선천적인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은 물론, 후천적인 미용성형을 통해서라도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 아름다움을 가꾸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과거 시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선천적인 조건에 후천적인 변화를 더함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강화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타고난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매력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화장은 물론 미용성형 등의 관리행동 통하여 자신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의 확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의 인식변화는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뷰티에 대한 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변화가 큰 오늘의 시대, 여성의 계층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각 계층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에 대한 매력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검증한 것이다.

여성의 얼굴, 체형, 헤어, 메이크업, 피부, 패션을 신체매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주장한 최승용, 이창욱(2005)의 연구에 따른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 매력지각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후천적인 요인인 화장이나 미용성형 등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것이다.

나아가 여성 개인의 외모에 대한 지각과 지각에 따른 관심과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 나이, 직업, 학력, 성격, 사회적 위치, 소득, 거주지 등 여성의 개인특

성에 따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교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학술적 가치와 이를 이용하여 얻게 될 뷰티숍과 뷰티업체, 뷰티용품업체, 미용성형업체 그리고 화장품업체의 마케팅 전략수립과 그 실행 등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실무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1.2 연구문제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가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1〉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가?

〈연구문제2〉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3〉 여성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 그리고 지각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4〉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신체매력 형성요인(선천적 요인, 후천적 요인)과 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5〉 서로 다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진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기대치와 한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다른가?

1.3 주요변수 및 사용용어의 조작적 정의

1.3.1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매력은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지만 여성 자신에게 자신감과 만족감을 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여성이 대인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속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원호택과 박현순(2001)은 신체적 매력은 상대의 호감과 칭찬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여성 스스로에게는 만족감을 주고, 여성의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고석주와 정진경(1992)은 여성의 신체매력은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성의 자아실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iller(1982)는 여성의 신체적 매력은 대인관계와 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이란, 여성 자신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신체매력지각의 정도는 여성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신체매력의 크기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3.2 여성의 자아존중감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일컫는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좋아하므로 자신을 아끼고 높이게 되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내게 된다. 여성들은 이처럼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여성의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스스로를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평가라고 하였다. 강석기(2003)는 자아존중감을 여성 자신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여성의 자아존중감이란, 여성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존중하는 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3.3 여성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여성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인 자기효능감이다. Schunk(1981)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스스로의 판단으로서, 자기효능감은 그 사람의 행위 선택, 노력 정도, 노력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조직해서 실행하는 지각특성 능력이라고 보고,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 얼마나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이라고 하였다. 권대훈(2009)은 자기효능감을 일정한 수준에서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신념, 즉 필요로 되어지는 행동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란, 여성 자신이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믿음과 생각의 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3.4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여성의 외모는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전체의 복합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신체는 물론 여성이 입는 옷과 장식까지도 포함하는 요소를 말하며,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란 이에 대한 여성의 관리를 일컫는다.

Lee, M. H.(2000)는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외모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여성 자신의 만족은 물론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여성들이 기울이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모든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Kaiser(1990)는 여성은 대부분 자신을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가꾼다고 하였다.

Baudrillard(2015)는 여성의 신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성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성의 외모는 관리를 해야 하는 투자 대상이라고 하였다.

김지양 등(2013)은 여성의 외모는 사회생활 속에서 개인의 능력만큼 중요하며,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자산인 만큼 여성들의 외모관리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다고 하였다.

이상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란, 여성 자신이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보이기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체의 노력과 행동, 그리고 투자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4 연구범위

여성 자신의 여러 가지 신체매력지각 요소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밝히기 위한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5가지 문제를 연구문제로 하고, 다음을 연구범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필요한 토대 이론인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 여성의 자아존중감, 여성의 자기효능감,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는 앞서 연구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그리고 학술발표 자료와 단행본을 수집한 후 이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 즉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에 대한 지각,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 요소와 지각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 요소와 지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여성

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 요소와 지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 강화를 위한 관리 행동 및 한계 인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조사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COVID 19)로 인하여 대면접촉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라는 점과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임을 고려하여 실증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조사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다.

1.5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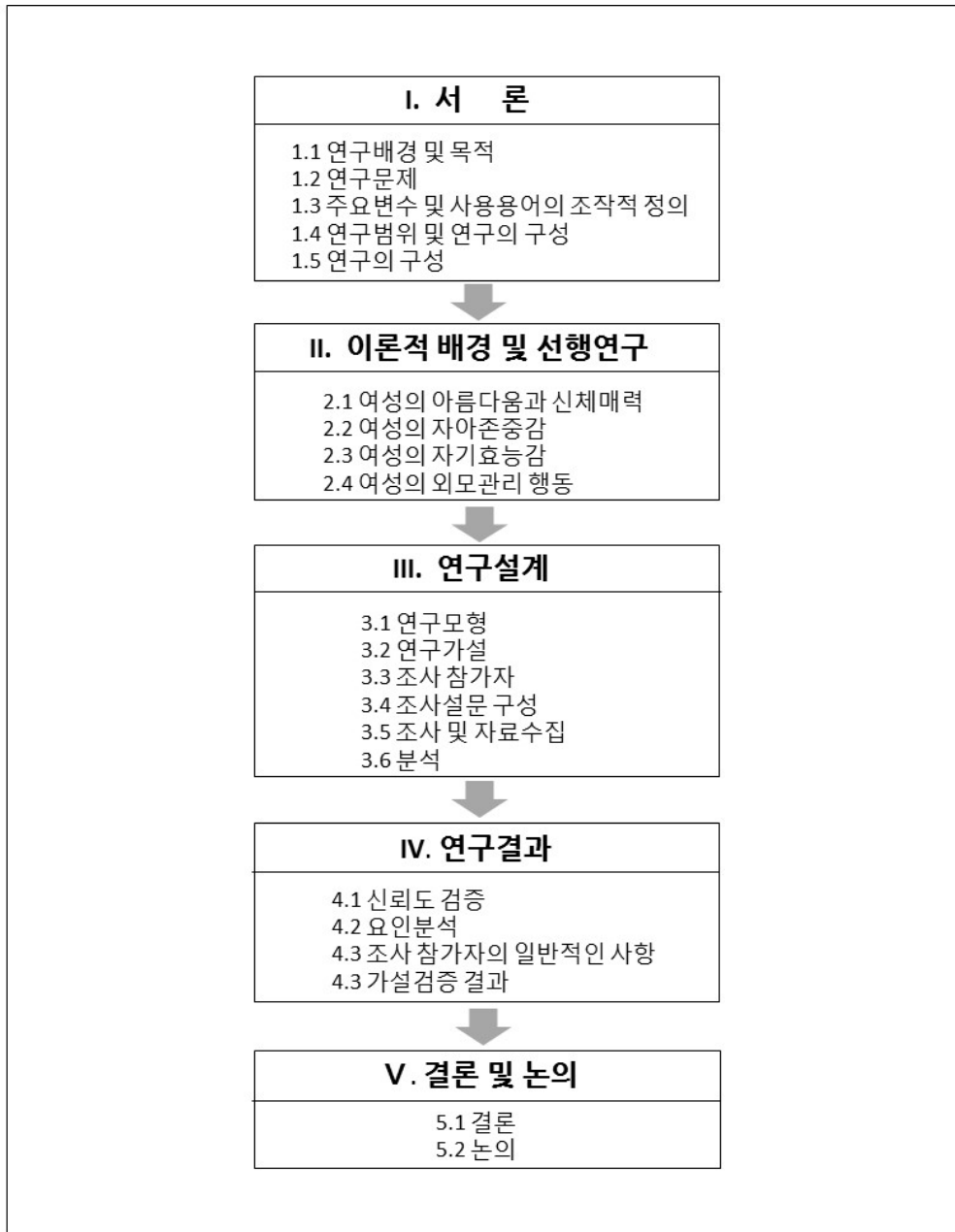
첫째,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문제 주요변수 및 사용용어의 조작적 정의, 연구 범위, 연구의 구성에 대한 기술.

둘째, 연구와 관련한 배경 이론인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관한 문헌분석, 즉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 여성의 자아존중감, 여성의 자기효능감,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문헌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

셋째,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조사 방법의 연구설계인 연구모형, 연구가설, 설문 구성, 조사 참가자, 조사 설문 구성, 조사 및 자료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대한 기술.

넷째, 실증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결과, 즉 연구결과인 신뢰도 검증, 요인 분석, 조사 참가자의 일반적인 상황분석, 연구문제에 따라 설정된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기술.

다섯째, 결론 및 논의, 즉 연구 문제 다섯 가지에 대한 결론,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관계, 그리고 연구에 대한 논의 등을 기술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오랜 인류 역사 동안 추구해온 인간 본성이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인간 아름다움의 대상이나 아름다움의 명확한 정의는 아직도 내려지지 않은 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Renz(2006), 그리고 Rhode(2010)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상대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여 아름다움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간의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거듭되어 왔던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름다움이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 주제나 방향은 Kaiser(1990), Karraker(1986) 등이 연구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이 인간 간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Lennon 등(1999)이 연구한 아름다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Rudd와 Lennon(2000), Reilly 외(2008), Reilly와 Rudd(2009)가 연구한 아름다움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Reis 등(1982)이 연구한 아름다움이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논하기 시작한 것은 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이다. 현대의 여러 학문 분야가 아름다움을 논해온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여성의 아름다움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지각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관리하는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은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보다 더 많이 주목받으며 평가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에서 여성들은 사회가 자신의 신체를 평가한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원호택과 박현순(2001)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적 매력은 상대방부터의 호감이나 칭찬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여성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사회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고석주와 정진경(1992)도 여성의 신체매력이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주장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신체매력의 평가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된다고 주장하였다.

Miller(1982)는 여성 신체적 매력의 속성을 여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신체적 매력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인지각에 있어서 비교 우위의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여성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West와 Brown(1975) 등은 매력을 가진 여성은 매력을 갖지 않은 여성보다 대인관계에서 이익이 더 많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데에 유리하다고 함으로써,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적 매력의 영향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Barocas와 Karoly(1972)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여성이 사회적 지원을 더 받게 되고,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매력적인 여성은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보다 자신감이 크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되어 자신감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신체매력지각에 따라 자아존중감이나 외모관련 스트레스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주게 됨으로써 고통과 혼란을 느끼는 등 여성에게 외모 스트레스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龙鸿祥과 刘嘉(Long Hong Xiang & Lu Jia, 2006)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시대, 민족, 문화,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아름다움의 판단기준도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미용성형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선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아름다움이 불평등한 사회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李英华(2020)는 여성의 신체매력은 사회문화 규범을 반영하는데, 오늘의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마른 체형이 유행하는 것은 오늘의 중국 사회가 심미적인 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余丹(Yu Dan, 2019)은 오늘날 뷰티와 패션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열광하는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의 역할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이 특정상황에서 권력이 되거나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은 여성들이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감성적 행복을 느끼게 함으로써, 여성 자신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말한 ‘몸은 문화에 의해 만들어지고 몸은 문화사회에 진입하는 도구’, 그리고 더크하임(Durkheim, E.)의 ‘인간은 유기체이자 문화의 산물이며 자연구성원이자 사회구성원’이라는 지적의 연장선에서 여성의 신체는 사회적 관계형상의 대상이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여성의 신체관리는 자신의 점유를 의미하는 지배 증명이자 권리이므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Berscheid와 Walster(1974)는 신체적 매력이 큰 사람은 더 재미있고, 강하며, 친절하고 사교적인 따뜻한 성격과 안정적인 느낌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Dipboye et al.(1975, 1977) 등은 역시 신체적 매력이 더 큰 경우가 취업에 더 유리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체 매력이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이 있음을 알게 한다.

West와 Brown(1975), Benson et al.(1976), 그리고 Barocas와 Karoly(1972) 역시 신체적 매력이 더 큰 경우가 사회적 지원이 크고,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이익도 더 많이 얻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체매력이 주는 영향력을 유추하게 한다.

Barocas와 Karoly(1972)는 사람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신체매력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은 여성이 아름답고 신체매력이 클 경우,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명광주(2006)는 여성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마음이 이끌리는 것은 감성의 영향 때문인데,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은 반사적이고 직관적으로 발생하는 섬세한 느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은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조건은 상대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冯小红(Feng Xiao Hong, 2008)은 식단조절, 바디빌딩, 화장, 헤어스타일, 스킨케어 등을 통한 뷰티관리는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지만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서 미용성형을 통한 미학적 외모개선을 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용성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용성형을 통한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 즉 개인의 수양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름다움을 위해 건강을 잃는 수도 있다고 하여 미용성형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사회 한편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적 매력이 지나칠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이 비록 보여지는 이미지, 즉 판타지가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인간 내면의 절대적인 기준은 진정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만 훌륭한 것들에는 싫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들은 숨겨진 내면을 더 궁금해 하는 것도 진심(김동욱,

2020)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의 외모 중시에 더해서 내면의 가치를 균형감 있게 키우는 일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2 여성의 자아존중감

여성의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평가가 자아존중감이다.

Simmon과 Resenberg(1975)은 자신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큰 자아존중감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여성이 느끼는 자신의 신체매력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현지(1991)는 자아존중감이 큰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므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크고 자신을 유능하게 생각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작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므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작고 자신을 무능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아존중감이 큰 사람은 자신의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가능성이 크며, 자아존중감이 작은 사람에 비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송태경(2005) 역시 신체매력을 가진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혜택이 많으며,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므로, 보다 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lliot(1986)은 자아존중감이 큰 사람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므로, 자아존중감은 동기 제공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ecord와 Jourard(1954)는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은 여성의 자신에 대한 감정과 같아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면 자아존

중도 커지고, 자아존중이 큰 사람이 자아에 대해 만족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Gabriel et al.(1994) 등은 자기도취 성향의 여성이 자신의 신체매력을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훈(1990)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체적 매력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갖는 것은 물론, 일을 더 잘하는 능력과 성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Adams(1977)는 신체매력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Lerner와 Karabenick(1974)는 신체매력 지각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더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매력지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신체매력에 따른 스트레스도 더 크게 받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周盈英(Zhou Ying Ying, 2012) 역시 중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남성보다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연구들은 여성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부분 음식, 여성 체중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정서, 여성의 자존심,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유행, 미디어로 인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 여성의 완벽추구주의 경향, 부모로부터의 선천적인 영향 측면에서 연구해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의 신체 만족 영향요소는 생물학적인 요인, 여성 개인의 요인,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귀결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은 주로 가족, 동반자, 매체영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여성들은 자신을 아름다움을 가꾸는 등 신체매력을 키우기 위해 화장, 다이어트, 미용성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여성의 신체매력에 관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 자신에 대한 신체만족도, 체중, 식생활을 들면서, 많은 연구들이 여성 자신의 신체만족 예측요소로서 이것들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endelson 등(2002)도 신체존중감이 작은 여성의 경우가 자아존중감도 낮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체존중감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Tucker(1982), Wells와 Marwell(1976), 황진숙과 김윤희(2006)는 자신의 신체 만족도가 커질수록 자신감과 자아존중도 커지게 되며, 신체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 자신의 신체만족도란 신체에 대해 자신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감정, 즉 만족도를 일컫는 데, Thompson(1999) 등은 신체만족도에 대해 신체적 불만(body dissatisfaction)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신체적 불만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신체적 불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Thompson 등(1999)은 사람들이 신체매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매스미디어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의식은 바로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매스미디어 때문에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명선(2003)은 자신의 신체매력을 낮게 지각하는 여성의 경우가 신체매력을 높게 지각하는 여성보다 성형수술을 통한 자신의 외모 향상 욕구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여성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외모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여성이 지각하는 매력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매력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면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신체매력을 크게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크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신체매력을 크게 느끼는 여성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생활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며, 그만큼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여성들은 대부분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손쉬워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비교 등을 통하여 더욱 경쟁적으로 자신의 신체매력을 자랑하고 가꾸는 노력을 거듭해 가고 있다.

물론 여성들이 아름답게 가꾸는 등 자신의 신체매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력적인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호감 반응은 오랜 역사 동안 불변의 현상이고 문화였으며, 여성 공통의 행동이기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2.3 여성의 자기효능감

어떤 일에 대한 능력과 역량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뜻하는 여성의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사고와 행동, 즉 자신이 수행할 일에 필요로 되는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노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자기효능감을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으로 설명한 Bandura(1977)는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자기효능감을 정의하고, 과업효능, 영역효능, 일반적인 효능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과업효능은 이전에 경험한 유사 과업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자신의 능력, 영역효능은 관련성을 가진 여러 가지의 과업을 판단하게 되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일반적 효능은 자신의 몸과 마음 전반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자신의 능력이라도 하였다.

Gist와 Mitchell(1992)은 자기효능감을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과제에 대해 개인이 판단하는 자신에 대한 기대라고 정의하면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과제 외에도 일반적인 일상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Zimmerman(2000)은 자신의 과제를 얼마나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라고 정의하면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원만하게 활용하는 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크면 과제해결은 물론 행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Sherer와 Jacobs(1983)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자신이 완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여 자신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Sherer et al(1982)은 자신감을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였다.

박영희(2010)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자신의 앞에 놓인 상황을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감이 큰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행동하게 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효능감이 큰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고 유능하게 일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극성을 갖고 일에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을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경향과도 유사하다.

Schunk(1984)는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나 잘 수행할 수 있는에 대한 판단을 자기조절이라고 주장하였다.

于洋(Yu Yang, 2007)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미용성형이 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행동에 적극성과 자신의 발전을 촉진하는 자기효능감을 주기 때문이며, 이 자기효능감은 여성 자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자신의 발전을 위한 뷰티관리도 적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학범(2010)은 자기효능감을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동기, 자원, 행동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 판단, 자신감, 용기를 갖는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를 적절히 조절 또는 통제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일을 수행하여 과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Jex & Bliese(1999)는 자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보다 일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긴장에서 더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효정(2014)은 자기효능감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 수행과 달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정경아(2003)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피하지 않으며, 정복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반면 Bandura(1986)와 Maddux(1995)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목표보다 낮은 목표를 잡기 때문에 목표 성취도도 낮게 된다는 것이다.

이승희와 박길순(2011)은 여대생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 관리비용의 지출도 많다고 주장하였다.

오강수(2016)는 20~30대 여성은 외모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가 높은 반면, 50대 는 신체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여성 자신의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 적응, 직업 만족, 사회 적응력이 높고 자기효능감도 높다고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감도 높았으며, 대인관계도 원만하다는 것이다.

2.4 여성의 외모 관리행동

여성의 외모는 우리가 상대를 만날 때 보고 느끼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외모를 갖고 있지만, 그 외모가 어떠한

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대인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에게 자신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외모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는 Kaiser(1985)의 주장과 같이 얼굴만이 아니라 첫인상을 갖게 하는 외양 전체를 포함하므로, 여성의 옷과 장식까지도 인상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패션은 여성의 직업과 가치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나 트렌드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문화적인 요인이지만,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연출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패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찍이 Stone(1965)은 외모를 사회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사회문화적 배경의 개념에서 여성의 외모는 여성 자신이 살아오며 경험한 사회문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나이에 따른 외모는 생물학적인 노화를 반영하는 진행형의 변화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의 외모는 엄밀하게 말해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어느 한 순간도 똑 같을 수는 없다.

이처럼 여성의 외모는 Roach와 Eicher(1973)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선천적인 유전 영향, 여성이 생활하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나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성들은 삶의 질의 향상과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 나이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자신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이승자와 박용(2011)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리 목적에 관한 연구에서 그 목적을 여성 자신의 표현, 체형 관리, 외모 만족, 아름다움 지향의 4개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19세와 20대는 체형관리, 30-34세는 외모만족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고 있으며, 낮은 연령일수록 피부스트레스가 많았고 피부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관심이 컸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통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크고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 보통 사춘기 때 시작되는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패션, 화장, 헤어스타일 등으로 나타난다(Hurlock, 1976).

과거 시대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한 것과는 달리 오늘날은 외형의 아름

다움을 중시하는 경향(Rudd & Lennon, 1994)이 되면서, 여성의 외모는 여성의 또 하나의 능력이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Bardock과 McAndrew(1985)는 여성의 신체 매력에 따라 사회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명희(2009)는 상류층 청소년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크며, 성적이 좋을수록 외모 만족도도 크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지가 삶의 만족감을 키우는데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해정과 오인영은(2011) 화장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인터넷과 TV활용율의 높다고 하였으며, 정은주와 김주연(2008)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클수록 여러 가지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지현(2014)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그리고 정명선(2003)은 자신의 신체매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많다고 주장하였다.

김희자와 권혜진(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나이가 많을수록, 또한 남녀공학 학교 학생인 경우가 외모 관심도가 컸고, 외모 관심도가 클수록 미백제품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 사용이 많다고 하였다. 외모 관심도가 큰 경우가 색조 화장 시기가 빨랐고 외모 관심도와 만족도가 클수록 색조 화장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홍수남(2013)은 한국 거주 중국 여성은 자신의 외모 관심도가 클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도 크고 피부, 헤어, 메이크업을 많이 하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설현진과 최인려(2010)는 이성 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용돈이 많을수록 뷰티 관심도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명희와 이은실(1997)은 나이가 많은 노년기 여성은 학력이 높고 용돈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컸으며, 외모의 아름다움은 노년기 여성의 자신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진영(2013)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리행동에 더 적극적이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여성들은 과거시대보다 오늘의 시대가 외모의 아름다움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외모 관리행동도 더 적극적이며, 외모 관리에 대한 기대감은 겉모습을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내면적인 심리적 만족감까지고 얻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외모관리행동이 적극적이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긍지를 키우고, 삶의 자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외모 만족도를 자신의 얼굴, 신체에 대한 신체만족도, 얼굴만족도, 외모만족도 등으로 표현해왔다.

이명희와 전경란(2003)은 여성의 성형은 점이나 흉터제거, 치아교정, 하반신 지방흡입, 쌍꺼풀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대는 지방흡입이 많은 반면, 40대는 성형을 가장 적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경진과 김미영(2004)은 자신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큰 여성이 화장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얼굴 만족도가 낮을수록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얼굴 만족도와 상관없이 화장 행동에 적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

Lee(2006)는 여성과 남성 모두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체 사이즈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장하였다.

이현옥과 박경애(2011)는 여성의 경우 얼굴 만족도는 얼굴형과 피부상태에 따른 영향이 컸고, 화장으로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외모를 보완해서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작은 계란형 얼굴, 밝고 깨끗한 얼굴, 주름 없는 탄력 있는 피부를 이상형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란(2012)은 외모관리를 많이 할수록 외모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전지현 이미숙(2014)은 자신에 대한 외모 평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외모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나, 외모관리행동은 적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민지, 정성지, 그리고 안미선(2015)은 20~30대 여성은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이 적극적이며, 외모관리중 가장 중요한 변인은 체중관리라고 주장하였다.

김경화와 김덕하(2009)는 노년여성의 경우에도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기초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구매빈도가 높았으며 화장률도 크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옥(2002)은 중년여성은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전현진과 정명선(2010)은 중년여성은 신체관련 스트레스가 많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인선과 고경숙(2011)은 연령이 적을수록 모발관리 행동에 적극적이고 연령이 많을수록 제품 구매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정현진, 그리고 정명선(2010)은 20~30대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체중과 체형, 피부, 헤어, 메이크업, 패션 등으로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은 메이크업이며 체중과 체형을 관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란 이화정(2007)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외모관리 태도와 인식이 높으나,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남녀 대학생 모두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주희 박옥련(2010)은 대학생의 외모관리는 타인을 의식한 자신의 개성표현이며, 성적 매력표현도 그 하나의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도 역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고, 개성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순(2008)은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은 크게 높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고, 특히 피부관리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강명주(2014)는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보다 화장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박선애와 김주연(2007)은 초등학생의 색조화장은 10~12세 미만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하면서, 립그로스를 이용한 입술화장에 많은 신

경을 쓰며 손톱화장도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화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피부보호, 여학생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함으로써, 외모관리 동기에서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정보다 외모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다.

여성의 외모관리는 여성을 둘러싼 내부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외모 관심 정도와 외모 만족도, 그리고 외부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중시 정도와 여성 자신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자신이 외모 만족도가 긍정적일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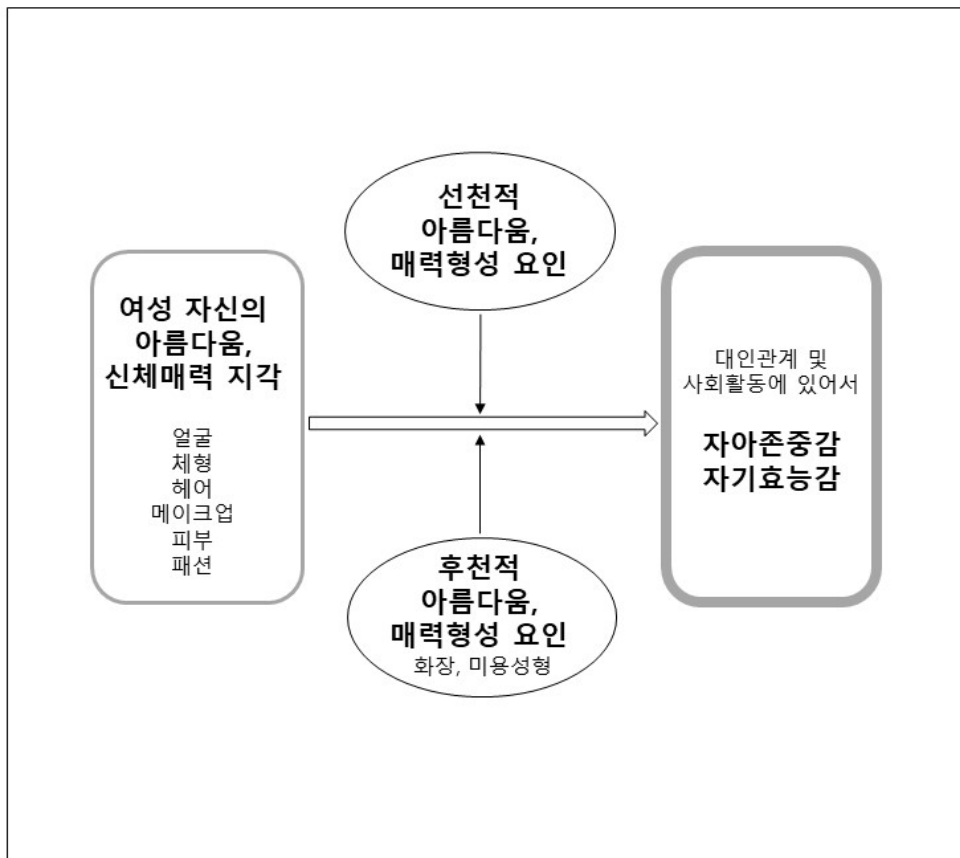
특히 여성의 나이는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며, 여성 대부분이 외모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于亮(Yu Liang, 2012)은 중국의 뷰티산업은 매우 발전가능성을 가진 산업으로서 점점더 뷰티 인재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중국 내 뷰티산업에 대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뷰티인력은 과거에는 단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00 년 이후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뷰티산업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준 높은 뷰티인재의 수요와 함께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 전역에 50 개 이상의 학교가 뷰티 전공을 개설하고 4 천명 이상의 높은 기술능력을 가진 뷰티인재를 양성하는 등 뷰티 인재 양성이 활발하다고 주장, 중국 여성의 뷰티에 대한 큰 관심과 그에 따른 관련 뷰티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 요소들이 여성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의 개념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연구가설 1-1〉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는 여성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1-2〉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는 서로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2-1〉 여성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2-2〉 여성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3-1〉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2〉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4-1〉 여성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신체매력 형성요인(화장, 미용 성형)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4-2〉 연구 참가자의 개인특성(일반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5-1〉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서로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5-2〉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서로 다를 것이다.

3.3 조사 참가자

본 연구의 조사는 20세 미만 여성부터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국 여성 700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개인특성은 서로 달랐다.

3.4 조사설문 구성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 사용한 조사도구, 즉 조사설문은 6개 영역의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설문구성 문항은 선행연구가 사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문문항은 뷰티전문가 2명과 광고마케팅 교수 2명으로 구성된 자문가 그룹의 사전 타당성 논의와 조작 테스트를 거쳐 조사도구화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영역 및 영역별 설문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지각 측정을 위한 영역의 설문은 뷰티전문가 2명과 광고마케팅 교수 2명으로 구성된 자문가 그룹이 추천하고 사전 타당성 논의와 테스트를 거쳐 선정한 설문문항과 김유성(2010)의 연구가 사용한 얼굴과 몸매에 관한 설문 등 25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둘째,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을 높이기 위한 미용성형 여부와 미용성형 목적, 그리고 미용성형 계획 등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의 설문은 김유성(2010)의 연구가 사용한 설문과 뷰티전문가 2명과 광고마케팅 교수 2명으로 구성된 자문가 그룹이 추천하고 사전 타당성 논의와 테스트를 거쳐 선정한 설문 등 5개

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에 따른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한 영역의 설문은 Rosenberg(1965), 황윤정(2007), 이주미(2017)의 연구가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조정과 보완을 거쳐 7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넷째,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에 따른 여성의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한 영역의 설문은 김종규(2017)의 연구가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조정과 보완을 거쳐 15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여성 자신의 신체매력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측정을 위한 영역의 설문은 Lennon과 Rudd(1994), Rudd와 Lennon(2000), 정지영(2003), 그리고 황진숙과 김윤희(2006) 등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조정과 보완을 거친 설문 12개, 그리고 뷰티전문가 2명과 광고마케팅 교수 2명으로 구성된 자문가 그룹이 추천하고 사전 타당성 논의와 테스트를 거쳐 선정한 4개의 설문 등 16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조사참가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11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3.5 조사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중국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5일 15:00부터 11월 16일 24:00까지 2일에 걸쳐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온라인 중복 접속 응답이나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럴에 의한 간섭효과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단 시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동일 지역 내 일정 참가자 수 이상은 설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통제하면서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위챗(wechat)과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은 대도시(大城市 : 北上廣深), 중도시(中等城市 : 省級市), 소도시(小城市 : 地級市), 농어촌 또는 산촌(农渔村或山村 : 县城, 乡镇村) 등으로 나뉘므로써, 조사참가자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도록 한 후,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설문 응답지를 클릭하거나, 해당 응답의 번호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조사 참가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여성 총 700명이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한 설문 188부를 제외한 512부를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자료에서 제외된 불성실한 응답 설문은 응답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총 60개 문항에 대한 응답시간이 300초(5분)미만인 응답 설문은 적정 통계자료에서 제외하였다.

3.6 자료분석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높이기 위한 미용성형 경험과 계획,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아름다

움과 신체매력 증대를 위한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4.1 신뢰도 검증

설문항목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파(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설문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1>.

<표 4-1> 신체매력 요소의 신뢰성 검증

		Alpha
신체매력지각	얼굴	.789
	몸매	.923
	피부	.788
	헤어	.778
	패션	.745
	전체	.943
자아존중감		.800
자기효능감		.926
외모관리행동		.846

4.2 조사 참가자의 일반적인 사항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은 20~25세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세 미만이 16.4%, 31~35세가 14.8%, 26~30세가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58.4%로 대부분이었고 기혼이 39.5%, 이혼이 2.1% 순이었다.

거주지는 중도시가 3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도시가 31.8%, 소도시가 29.5%, 농어촌 또는 산촌이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대학생이

〈표 4-2〉 조사참가자의 일반적 사항

N=512

		빈도	퍼센트
연령	20세 미만	84	16.4
	20-25세	156	30.5
	26-30세	74	14.5
	31-35세	76	14.8
	36-40세	26	5.1
	41-45세	22	4.3
	46-50세	29	5.7
	51-55세	36	7.0
	56-60세	9	1.8
결혼여부	미혼	299	58.4
	기혼	202	39.5
	이혼	11	2.1
거주지	대도시	163	31.8
	중도시	172	33.6
	소도시	151	29.5
	농어촌 또는 산촌	26	5.1
직업	대학생	208	40.6
	주부	55	10.7
	뷰티업 종사자	28	5.5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	33	6.4
	전문기술자	30	5.9
	사무직 관련자	21	4.1
	상업, 서비스	37	7.2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2	.4
	생산, 운송설비 관련자	3	.6
	기타 업종 종사자	95	18.6
생활수준	하	140	27.3
	중	353	68.9
	상	19	3.7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57	11.1
	고등학교 졸업	35	6.8
	전문대 재학/졸업	161	31.4
	대학생 재학/졸업	149	29.1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	63	12.3
	대학원 박사 재학/졸업	47	9.2

		빈도	퍼센트
키	작음	91	17.8
	보통	329	64.3
	큼	92	18.0
몸무게	마른 편	16	3.1
	날씬한 편	103	20.1
	보통	169	33.0
	통통한 편	195	38.1
	뚱뚱한 편	29	5.7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46	9.0
	만족하지 않는 편	208	40.6
	보통	118	23.0
	만족하는 편	123	24.0
	매우 만족	17	3.3
최근 1년동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	있다	302	59.0
	없다	210	41.0
체중 줄이기에 대한 생각	매우 어려웠다	110	21.5
	어려웠다	210	41.0
	보통이다	113	22.1
	쉬웠다	52	10.2
	매우 쉬웠다	27	5.3
합계		512	100.0

40.6%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기타 업종 종사자가 18.6%, 주부가 10.7%, 상업, 서비스가 7.2% 등의 순이었다.

생활수준은 중이 68.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하가 27.3%, 상이 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전문대 재학 졸업이 31.4%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 재학/졸업이 29.1%,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이 12.3%, 고등학교 이하가 11.1% 등의 순이었다.

키는 보통이 64.3%로 대부분이었고 큼이 18.0%, 작음이 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통통한 편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 33.0%, 날씬한 편이 20.1%, 뚱뚱한 편이 5.7% 등의 순이었다.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만족하지 않는 편이 약 49%로 매우 만족+만족하는 편이 약 27%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년동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9.0%로 대부분이었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1.0%였다.

체중 줄이기에 대한 생각은 매우 어려웠다+어려웠다는 응답이 약 62%로 매우 쉬웠다+쉬웠다보다 약 15%보다 더 높았다.

4.3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매력은 보통이 74.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높음이 17.8%, 낮음이 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매력 원인은 얼굴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몸매가 23.4%, 피부가 21.1%, 패션이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빈도	퍼센트
신체매력	낮음	40	7.8
	보통	381	74.4
	높음	91	17.8
신체매력 원인	얼굴	153	29.9
	몸매	120	23.4
	피부	108	21.1
	헤어	26	5.1
	패션	105	20.5
	선천적	446	87.1
	후천적	66	12.9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	미용성형	29	5.7
	화장 또는 패션	483	94.3
합계		512	100.0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는 선천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후천적이라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으며 후천적인 신체매력이 미용성형에 의한 것인지, 화장 또는 패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화장 또는 패션이 94.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미용성형은 5.7%로 나타났다.

〈표 4-4〉 신체매력지각의 일반적인 경향

N=51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얼굴	얼굴형	1	5	3.30	.791
	눈	1	5	3.56	.872
	코	1	5	3.10	.888
	입	1	5	3.28	.805
	턱	1	5	3.07	.826
몸매	목	1	5	2.94	.906
	팔	1	5	2.79	.859
	가슴	1	5	3.11	.947
	허리	1	5	3.16	.970
	배	1	5	2.73	.998
	힙	1	5	3.04	.980
	허벅지	1	5	2.85	.983
	다리	1	5	3.03	1.000
	신체비례	1	5	3.18	.902
	전체적인 몸매	1	5	3.20	.872
피부	피부결	1	5	3.16	.872
	피부색	1	5	3.30	.918
헤어	머릿결	1	5	3.25	.939
	헤어스타일	1	5	3.15	.845
패션	패션스타일	1	5	3.38	.819
	명품브랜드	1	5	2.96	.898

- 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지각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얼굴의 경우에는 눈이 5점 만점에 3.56점, 얼굴형이 3.30점, 입이 3.28점, 코가 3.10점 순으로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몸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몸매가 5점 만점에 3.20점, 신체비례가 3.18점, 허리가 3.16점 순으로 타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배는 2.73점, 팔은 2.79점으로 타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목, 허벅지, 팔, 배는 5점 만점에 3점 이하로 나타나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색이 5점 만점에 3.30점, 피부결이 3.16점 순으로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헤어의 경우에는 머릿결이 5점 만점에 3.25점, 헤어스타일이 3.15점 순으로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패션의 경우에는 패션스타일이 5점 만점에 3.38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반면에 명품브랜드는 2.96점으로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4.4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높이기 위한 미용성형 경험과 계획

〈표 4-5〉 미용성형 경험과 계획에 관한 사항

		빈도	퍼센트
미용성형을 했는지 여부	했다	138	27.0
	하지 않았다	374	73.0
앞으로 미용성형을 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지 여부	하고 싶다	277	54.1
	하고 싶지 않다	235	45.9
미용성형을 하려는 이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179	35.0
	자신감을 얻기 위해	166	32.4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26	5.1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45	8.8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17	3.3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48	9.4
	취업을 위해	8	1.6
	연애 또는 결혼을 위해	4	.8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5	1.0
	돈을 모으기 위해	14	2.7
	합계	512	100.0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성형 경험과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미용성형을 했는지 여부는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했다는 응답은 27.0%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미용성형을 할 생각

이나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하고 싶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45.9%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을 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감을 얻기 위해가 32.4%,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가 9.4%,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가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자신이 한 미용성형

	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눈	240	75	20.1	6	4.7	3	4.1
코	62	10	2.7	15	11.7	2	2.7
반영구	254	61	16.3	32	25.0	7	9.5
얼굴윤곽	35	4	1.1	7	5.5	9	12.2
치아	133	29	7.8	17	13.3	12	16.2
피부	145	26	7.0	25	19.5	17	23.0
지방흡입 또는 주입	14	2	.5	2	1.6	4	5.4
가슴 확대 또는 축소	4	0	.0	0	.0	4	5.4
제모	100	13	3.5	23	18.0	15	20.3
모두 하지 않았다		154	41.2	1	.8	1	1.4
합계		374	100.0	128	100.0	74	100.0

• 점수=1순위×3+2순위×2+3순위×1, 응답자만 처리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한 미용성형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모두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1.2%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눈이 20.1%, 반영구가 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반영구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부가 19.5%, 제모가 18.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순위에서는 피부가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모가 20.3%, 치아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점수화하여 살펴보면 반영구가 2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눈이 240점, 피부가 145점 순으로 눈 또는 반영구를 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하고 싶은 미용성형에 대해 살펴보면 눈이 25.0%로 1순위로 꼽은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하였고 모두 하지 않을 것이다가 18.3%, 코가 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치아가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코가 18.3%, 반영구가 14.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순위에서는 피부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가 16.1%, 얼굴윤곽이 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점수화하여 살펴보면 눈이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부가 262점, 코가 253점 순으로 눈 또는 피부를 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앞으로 하고 싶은 미용성형

	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눈	334	105	25.0	6	2.6	7	4.7
코	253	52	12.4	42	18.3	13	8.7
반영구	225	47	11.2	34	14.8	16	10.7
얼굴윤곽	141	23	5.5	26	11.3	20	13.4
치아	242	44	10.5	43	18.7	24	16.1
피부	262	51	12.1	33	14.3	43	28.9
지방흡입 또는 주입	67	11	2.6	14	6.1	6	4.0
가슴 확대 또는 축소	31	3	.7	9	3.9	4	2.7
제모	83	7	1.7	23	10.0	16	10.7
모두 하지 않을 것이다		77	18.3	0	.0	0	.0
합계		420	100.0	230	100.0	149	100.0

- 점수=1순위×3+2순위×2+3순위×1, 응답자만 처리

4.5 자아존중감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나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가 5점 만점에 4.10점, ‘나는 남들만큼 일

할 수 있다'가 4.02점,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가 3.94점 순으로 타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는 2.94점, '나는 자랑스런 사람이다'는 3.08점으로 타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는 5점 만점에 3점 이하로 나타나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표 4-8〉 자아존중감의 일반적인 경향

N=51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1	5	3.94	.727
나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1	5	4.10	.651
나는 자랑스런 사람이다	1	5	3.08	1.071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1	5	2.94	.974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이다	1	5	3.70	.947
나는 쓸모가 많은 사람이다	1	5	3.65	.809
나는 남들만큼 일 할 수 있다	1	5	4.02	.606

-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4.6 자기효능감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나는 중요한 일은 끝까지 노력해서 달성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5점 만점에 3.93점, '나는 내가 노력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가 3.88점,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3.87점으로 타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3.02점, '나는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3.27점으로 타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모든 문항이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표 4-9〉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

N=51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1	5	3.70	.831
나는 마음먹은 일을 해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1	5	3.67	.800
나는 뜻밖의 상황을 접해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5	3.66	.788
나는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1	5	3.27	.984
나는 내가 노력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2	5	3.88	.718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5	3.87	.654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1	5	3.74	.744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다	1	5	3.02	.890
나는 내가 세운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	5	3.46	.884
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1	5	3.59	.784
나는 중요한 일은 끝까지 노력해서 달성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5	3.93	.593
나는 무슨 일이든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5	3.44	.976
나는 어려움이 여러 번 닥쳐오더라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2	5	3.63	.765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	5	3.40	.921
나는 상황과 형편이 힘들더라도,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다	2	5	3.68	.754

-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

4.7 외모관리행동

〈표 4-10〉 외모관리행동의 일반적인 경향

N=51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몸매를 위해 운동을 한다	1	5	3.47	1.085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는다	1	5	3.34	1.156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칼로리 음식을 골라 먹는다	1	5	3.23	1.172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물(살 빼는약, 이노제, 설사제)	1	5	1.95	1.100
나는 체중조절을 위해 구토를 하기도 한다	1	5	1.60	.840
나는 헤어스타일을 위해 무스, 헤어젤, 왁스 등을 바른다	1	5	2.21	1.119
나는 헤어스타일을 위해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하고 다닌다	1	5	2.38	1.100
나는 연예인의 옷차림을 모방한다	1	5	3.28	1.135
나는 최신 유행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	1	5	2.60	1.066
나는 매일 기초화장을 한다	1	5	3.97	.924
나는 늘 눈썹을 정리한다	1	5	3.35	1.148
나는 집에서 대부분 외모관리를 한다	1	5	2.46	1.021
나는 뷰티숍을 이용하여 외모관리를 한다	1	5	3.01	1.163
나는 정기적으로 뷰티관리 전문점을 이용하여 외모관리를 한다	1	5	2.60	1.127
나는 정기적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병원을 이용하여 외모관리를 한다	1	5	2.24	1.053
나는 후천적인 뷰티관리행동인 화장, 피부관리, 헤어관리 등의 신체매력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5	3.66	.993
나는 좀 더 나은 외모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미용성형을 했거나, 할 계획을 갖고 있다	1	5	2.93	1.207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처리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모관리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나는 매일 기초화장을 한다’가 5점 만점에 3.97점, ‘나는 후천적인 뷰티관리행동인 화장, 피부관리, 헤어관리 등의 신체매력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3.66점으로 타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나는 체중조절을 위해 구토를 하기도 한다’는 1.60점,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물(살 빼는약, 이노제, 설사제)’는 1.95점으로 타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나는 매일 기초화장을 한다’, ‘나는 후천적인 뷰티관리행동인 화장, 피부관리, 헤어관리 등의 신체매력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몸매를 위해 운동을 한다’, ‘나는 늘 눈썹을 정리한다’,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는다’, ‘나는 연예인의 옷차림을 모방한다’,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칼로리 음식을 골라 먹는다’, ‘나는 뷰티숍을 이용하여 외모관리를 한다’는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반면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하로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4.8 가설검증결과

〈연구가설 1-1〉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는 여성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매력 요소에 따라서는 피부, 헤어라고 답한 집단은 신체매력이 낮다는 응답이 각각 14.8%, 15.4%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패션이라고 답한 집단은 신체매력이 높다는 응답이 22.9%로 타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3.142$, $p<.01$)

따라서 〈연구가설 1-1〉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는 여성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11〉 신체매력 요소에 따른 신체매력

	낮음	보통	높음	전체	$\chi^2(p)$
얼굴	11	112	30	153	23.142** (.003)
	7.2%	73.2%	19.6%	100.0%	
몸매	5	90	25	120	
	4.2%	75.0%	20.8%	100.0%	
피부	16	80	12	108	
	14.8%	74.1%	11.1%	100.0%	
헤어	4	22	0	26	
	15.4%	84.6%	0.0%	100.0%	
패션	4	77	24	105	
	3.8%	73.3%	22.9%	100.0%	
전체	40	381	91	512	
	7.8%	74.4%	17.8%	100.0%	

** $p < .01$

〈연구가설 1-2〉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는 서로 다를 것이다.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지각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매력지각 전체는 5점 만점에 3.12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표 4-12〉 신체매력지각의 일반적인 경향

N=51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얼굴	1	5	3.31	.658
몸매	1	5	3.01	.702
피부	1	5	3.23	.814
헤어	1	5	3.20	.808
패션	1	5	3.17	.767
전체	1	5	3.12	.617

- 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

각 요인별로는 얼굴이 5점 만점에 3.31점, 피부가 3.23점으로 타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몸매는 3.01점으로 타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모든 요인이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1-2〉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는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2-1〉 여성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를 것이다.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지각,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신체매력지각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의 경우에는 $r=.424(p<.01)$ 에서 $r=.575(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신체매력지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신체매력지각,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와 존중감,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자신의 아름다 움과 신체매 력에 대한 생각	1. 얼굴	1									
	2. 몸매	.643**	1								
	3. 피부	.626**	.582**	1							
	4. 헤어	.572**	.585**	.611**	1						
	5. 패션	.536**	.636**	.526**	.583**	1					
	6. 전체	.800**	.948**	.738**	.735**	.745**	1				
7.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		.002	-.086	-.040	-.099*	-.032	-.072	1			
8. 자아존중감		.522**	.503**	.488**	.424**	.468**	.575**	-.019	1		
9. 자기효능감		.431**	.462**	.400**	.370**	.429**	.510**	-.025	.635**	1	
10. 외모관리행동		.269**	.231**	.191**	.157**	.388**	.282**	.144**	.257**	.282**	1

* $p<.05$, ** $p<.01$

다음으로 신체매력지각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의 경우에는 $r=.370(p<.01)$ 에서 $r=.510(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신체매력지각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매력지각과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의 경우에는 $r=.157(p<.01)$ 에서 $r=.388(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신체매력지각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의 경우에는 $r=.144(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신의 신체매력이 후천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1> 여성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2-2> 여성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를 것이다.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자아존중감($F=44.351, p<.001$), 자기효능감($F=28.546,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신체매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모두 신체매력이 낮은 집단보다 보통인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2> 여성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14〉 신체매력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N	M	SD	F	p	Scheffe
자아존중감	낮음a	40	3.16	.522	44.351***	.000	c>b>a
	보통b	381	3.58	.505			
	높음c	91	4.04	.605			
자기효능감	낮음a	40	3.20	.591	28.546***	.000	c>b>a
	보통b	381	3.56	.525			
	높음c	91	3.92	.588			

*** $p < .001$

〈연구가설 3-1〉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표 4-15〉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상수)	1.839	.111		16.534	.000		
얼굴	.198	.045	.230	4.413***	.000	.471	2.123
몸매	.125	.044	.154	2.865**	.004	.439	2.278
피부	.117	.036	.167	3.275***	.001	.490	2.042
헤어	.008	.036	.011	.227	.821	.497	2.014
패션	.113	.037	.152	3.066**	.002	.515	1.940
F=55.739*** $p < .001$ $R^2 = .355$							

** $p < .01$, *** $p < .001$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VIF^1) = 1.940$ 에서 2.278로 나타나 VIF 값이 10보다 크게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요건에서 벗어나 회귀

1) Variance Inflation Factor(VIF: 분산팽창계수)는 말 그대로 모형의 분산을 크게 해주는 정도를 표시한 값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중공선성의 첫번째 문제점이 바로 모형의 분산을 크게 만든다는 것에서 기인하여 만든 계수값으로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모형의 분산이 크다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력은 35.5%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55.739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지각의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얼굴($\beta=.230$, $p<.001$), 몸매($\beta=.154$, $p<.01$), 피부($\beta=.167$, $p<.001$), 패션($\beta=.152$,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얼굴, 몸매, 피부, 패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순위는 얼굴, 피부, 몸매, 패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6〉 신체매력지각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상수)	2.053	.119		17.277	.000		
얼굴	.125	.048	.145	2.614**	.009	.471	2.123
몸매	.161	.047	.199	3.464***	.001	.439	2.278
피부	.068	.038	.097	1.788	.074	.490	2.042
헤어	.011	.038	.016	.288	.774	.497	2.014
패션	.123	.039	.165	3.120**	.002	.515	1.940
F=37.344*** $p<.001$ $R^2=.270$							

** $p<.01$, *** $p<.001$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지각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27.0%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37.344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지각의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얼굴($\beta=.145$, $p<.01$), 몸매($\beta=.199$, $p<.001$), 패션($\beta=.165$,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자신의 얼굴, 몸매, 패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자기 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몸매, 패션, 얼굴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3-1〉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라는 가설은 부분채택되었다.

〈연구가설 3-2〉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표 4-17〉 신체매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상수)	2.707	.101		26.831	.000		
신체매력	.441	.047	.385	9.423***	.000	1.000	1.000
F=88.785*** $p<.001$ $R^2=.148$							

*** $p<.001$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14.8%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88.785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신체매력($\beta=.385$,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매력이 높아지면 자아존중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10.1%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57.204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신체매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상수)	2.831	.104		27.219	.000		
신체매력	.365	.048	.318	7.563***	.000	1.000	1.000
F=57.204*** $p<.001$ $R^2=.101$							

*** $p<.001$

신체매력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신체매력($\beta=.318$,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매력이 높아지면 자기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2〉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4-1〉 여성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신체매력 형성요인(화장, 미용 성형)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 형성요인이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미용성형과 화장 또는 패션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화장 또는 패션에 의한 것보다 미용성형에 의한 것이 신체매력지각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9〉 후천적인 신체매력이 미용성형에 의한 것인지, 화장 또는 패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N	M	SD	t	p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미용성형	29	3.22	.823	.665	.511
	화장 또는 패션	483	3.12	.603		
자아존중감	미용성형	29	3.63	.559	-.062	.951
	화장 또는 패션	483	3.63	.569		
자기효능감	미용성형	29	3.64	.552	.436	.663
	화장 또는 패션	483	3.59	.571		

〈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 형성요인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모두 후천적보다 선천적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0〉 자신의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에 따른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N	M	SD	t	p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선천적	446	3.14	.619	1.627	.104
	후천적	66	3.01	.597		
자아존중감	선천적	446	3.64	.571	.430	.667
	후천적	66	3.60	.551		
자기효능감	선천적	446	3.60	.578	.563	.574
	후천적	66	3.56	.515		

따라서 〈연구가설 4-1〉 후천적인 신체매력이 미용성형에 의한 것인지, 화장 또는 패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자신의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4-2〉 연구 참가자의 개인특성(일반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지각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20세 미만이 3.11점, 20~25세가 2.97점, 26~30세가 3.15점, 31~35세가 3.15점, 36~40세가 3.16점, 41~45세가 3.35점, 46~50세가 3.39점, 51~55세가 3.14점, 56~60세가 3.71점으로 55세 이하보다 56~60세가 신체매력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F=3.463$,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20~25세보다 56~60세가 신체매력지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이 3.06점, 기혼이 3.20점, 이혼이 3.43점으로 이혼한 집단이 신체매력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4.625$,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미혼보다 이혼한 집단이 신체매력지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가 2.86점, 중이 3.19점, 상이 3.76점으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매력지각이 높게 나타났으며($F=27.022$,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하보다 중이, 중보다 상이 신체매력지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이하가 3.09점, 고등학교 졸업이 3.24점, 전문대/재학 졸업이 2.98점, 대학생 재학/졸업이 3.16점,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이 3.20점, 대학원 박사 재학/졸업이 3.33점으로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 이하보다 대학원 박사/재학 졸업이 신체매력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F=3.320$,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대학원 박사/재학 졸업이 신체매력지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키에 따라서는 작음이 2.89점, 보통이 3.16점, 큼이 3.22점으로 키가 클수록 신체매력지각이 높게 나타났으며($F=8.430$,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키가 작은 집단보다 보통, 큰 집단이 신체매력지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조사참가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신체매력지각 차이 검증

		N	M	SD	t/F	p	Scheffe
연령	20세 미만 ^a	83	3.11	.652	3.463***	.001	i>b
	20-25세 ^b	156	2.97	.587			
	26-30세 ^c	74	3.15	.590			
	31-35세 ^d	77	3.15	.634			
	36-40세 ^e	26	3.16	.550			
	41-45세 ^f	22	3.35	.502			
	46-50세 ^g	29	3.39	.600			
	51-55세 ^h	36	3.14	.615			
	56-60세 ⁱ	9	3.71	.699			
결혼여부	미혼 ^a	299	3.06	.605	4.625**	.010	c>a
	기혼 ^b	202	3.20	.624			
	이혼 ^c	11	3.43	.606			
거주지	대도시	163	3.20	.609	2.582	.053	
	중도시	172	3.09	.632			
	소도시	151	3.04	.571			
	농어촌 또는 산촌	26	3.28	.753			
직업	대학생	208	3.06	.585	1.466	.158	
	주부	55	2.98	.586			
	뷰티업 종사자	28	3.20	.709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	33	3.32	.632			
	전문기술자	30	3.13	.543			
	사무직 관련자	21	3.27	.437			
	상업, 서비스	37	3.12	.525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2	3.71	1.414			
	생산, 운송설비 관련자	3	3.13	.167			
생활수준	기타 업종 종사자	95	3.19	.726	27.022***	.000	c>b>a
	하 ^a	140	2.86	.677			
	중 ^b	353	3.19	.539			
	상 ^c	19	3.76	.747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a	57	3.09	.615	3.320**	.006	f>c
	고등학교 졸업 ^b	35	3.24	.574			
	전문대 재학/졸업 ^c	161	2.98	.606			
	대학생 재학/졸업 ^d	149	3.16	.616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 ^e	63	3.20	.661			
	대학원 박사 재학/졸업 ^f	47	3.33	.549			

		N	M	SD	t/F	p	Scheffe
키	작음a	91	2.89	.641	8.430***	.000	b,c>a
	보통b	329	3.16	.622			
	큼c	92	3.22	.520			
몸무게	마른 편a	16	2.90	.570	14.197***	.000	c>e b>a,d
	날씬한 편b	103	3.40	.609			
	보통c	169	3.20	.549			
	통통한 편d	195	2.99	.585			
	뚱뚱한 편e	29	2.65	.736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a	46	2.62	.686	36.102***	.000	b,c>a d>b e>c,d
	만족하지 않는 편b	208	2.99	.526			
	보통c	118	3.16	.489			
	만족하는 편d	123	3.34	.549			
	매우 만족e	17	4.26	.714			
최근 1년동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	있다	302	3.09	.600	-1.296	.195	
	없다	210	3.16	.639			
체중 줄이기에 대한 생각	매우 어려웠다a	110	2.89	.594	8.322***	.000	d,e>a
	어려웠다b	210	3.11	.568			
	보통이다c	113	3.18	.584			
	쉬웠다d	52	3.42	.619			
	매우 쉬웠다e	27	3.32	.851			

** $p<.01$, *** $p<.001$

몸무게에 따라서는 마른 편이 2.90점, 날씬한 편이 3.40점, 보통이 3.20점, 통통한 편이 2.99점, 뚱뚱한 편이 2.65점으로 뚱뚱한 편인 집단보다 나머지 집단이 신체매력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F=14.197$,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뚱뚱한 편보다 보통인 집단이, 마른 편, 통통한 편보다 날씬한 편인 집단이 신체매력지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불만족이 2.62점, 만족하지 않는 편이 2.99점, 보통이 3.16점, 만족하는 편이 3.34점, 매우 만족이 4.26점으로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매력지각이 높게 나타났으며($F=36.102$,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매우 불만족보다 만족하지 않는 편, 보통이, 만족하지 않는 편보다 만족하는 편이, 보통, 만족하는 편보다 매우 만족이 신체매력지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체중 줄이기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2.89점, 어려웠다가 3.11점, 보통이다가 3.18점, 쉬웠다가 3.42점, 매우 쉬웠다가 3.32점으로 대체

로 체중 줄이기가 쉬웠을수록 신체매력지각이 높게 나타났으며($F=8.322$,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매우 어려웠다보다 쉬웠다, 매우 쉬웠다고 답한 집단이 신체매력지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이 3.59점, 기혼이 3.67점, 이혼이 4.01점으로 이혼한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3.580$, $p<.05$)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미혼보다 이혼한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가 3.97점으로 타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생산, 운송설비 관련자는 3.33점으로 타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F=2.948$,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생산, 운송설비 관련자보다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가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가 3.43점, 중이 3.69점, 상이 4.09점으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F=17.225$,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중, 하보다 상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이하가 3.46점, 고등학교 졸업이 3.58점, 전문대/재학 졸업이 3.55점, 대학생 재학/졸업이 3.70점,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이 3.76점, 대학원 박사 재학/졸업이 3.76점으로 대체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F=3.404$,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고등학교 이하보다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 대학원 박사/재학 졸업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몸무게에 따라서는 마른 편이 3.32점, 날씬한 편이 3.75점, 보통이 3.65점, 통통한 편이 3.59점, 뚱뚱한 편이 3.56점으로 마른 편인 집단보다 나머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F=2.886$, $p<.05$)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마른 편보다 날씬한 편인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불만족이 3.35점, 만족하지 않

〈표 4-22〉 조사참가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

		N	M	SD	t/F	p	Scheffe
연령	20세 미만	83	3.53	.609	1.804	.074	
	20-25세	156	3.56	.577			
	26-30세	74	3.70	.515			
	31-35세	77	3.74	.557			
	36-40세	26	3.67	.490			
	41-45세	22	3.77	.528			
	46-50세	29	3.75	.498			
	51-55세	36	3.54	.643			
결혼여부	56-60세	9	3.83	.514	3.580*	.029	c>a
	미혼a	299	3.59	.571			
	기혼b	202	3.67	.554			
거주지	이혼c	11	4.01	.608	2.603	.051	
	대도시	163	3.73	.554			
	중도시	172	3.61	.532			
	소도시	151	3.55	.571			
직업	농어촌 또는 산촌	26	3.64	.784	2.948**	.002	d>i
	대학생a	208	3.58	.538			
	주부b	55	3.45	.555			
	뷰티업 종사자c	28	3.76	.481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d	33	3.97	.579			
	전문기술자e	30	3.78	.465			
	사무직 관련자f	21	3.80	.460			
	상업, 서비스g	37	3.58	.579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h	2	3.57	.202			
생활수준	생산, 운송설비 관련자i	3	3.33	.218	17.225***	.000	c>a,b
	기타 업종 종사자j	95	3.65	.655			
	하a	140	3.43	.587			
	중b	353	3.69	.534			
최종학력	상c	19	4.09	.586	3.404**	.005	e,f>a
	고등학교 이하a	57	3.46	.538			
	고등학교 졸업b	35	3.58	.455			
	전문대 재학/졸업c	161	3.55	.569			
	대학생 재학/졸업d	149	3.70	.596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e	63	3.76	.544			
키	대학원 박사 재학/졸업f	47	3.76	.541	1.764	.172	
	작음	91	3.54	.539			
	보통	329	3.64	.587			
	큼	92	3.69	.518			

		N	M	SD	t/F	p	Scheffe
몸무게	마른 편a	16	3.32	.916	2.886*	.022	b>a
	날씬한 편b	103	3.75	.627			
	보통c	169	3.65	.513			
	통통한 편d	195	3.59	.513			
	뚱뚱한 편e	29	3.56	.689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a	46	3.35	.728	16.433***	.000	c,d>a e>b,c,d
	만족하지 않는 편b	208	3.55	.440			
	보통c	118	3.69	.573			
	만족하는 편d	123	3.71	.563			
	매우 만족e	17	4.50	.556			
최근 1년동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	있다	302	3.63	.537	.090	.928	
	없다	210	3.63	.611			
체중 줄이기에 대한 생각	매우 어려웠다	110	3.53	.609	1.359	.247	
	어려웠다	210	3.64	.508			
	보통이다	113	3.68	.522			
	쉬웠다	52	3.68	.665			
	매우 쉬웠다	27	3.71	.775			

* $p<.05$, ** $p<.01$, *** $p<.001$

는 편이 3.55점, 보통이 3.69점, 만족하는 편이 3.71점, 매우 만족이 4.50점으로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F=16.433$,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매우 불만족보다 보통, 만족하는 편이, 만족하지 않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보다 매우 만족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이 3.55점, 기혼이 3.65점, 이혼이 3.86점으로 이혼한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3.075$, $p<.05$)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미혼보다 이혼한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3.68점, 중도시가 3.56점, 소도시가 3.50점, 농어촌 또는 산촌이 3.84점으로 농어촌 또는 산촌에 거주하는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4.527$,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중도시, 소도시보다 농어촌 또는 산촌에 거주하는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23〉 조사참가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N	M	SD	t/F	p	Scheffe
연령	20세 미만	83	3.55	.584	.726	.669	
	20-25세	156	3.54	.534			
	26-30세	74	3.63	.617			
	31-35세	77	3.64	.565			
	36-40세	26	3.71	.473			
	41-45세	22	3.68	.460			
	46-50세	29	3.62	.636			
	51-55세	36	3.56	.684			
	56-60세	9	3.84	.523			
결혼여부	미혼a	299	3.55	.574	3.075*	.047	c>a
	기혼b	202	3.65	.553			
	이혼c	11	3.86	.656			
거주지	대도시a	163	3.68	.546	4.527**	.004	d>b,c
	중도시b	172	3.56	.548			
	소도시c	151	3.50	.578			
	농어촌 또는 산촌d	26	3.84	.687			
직업	대학생a	208	3.52	.536	2.430**	.010	d>h
	주부b	55	3.54	.599			
	뷰티업 종사자c	28	3.83	.461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d	33	3.89	.569			
	전문기술자e	30	3.67	.659			
	사무직 관련자f	21	3.72	.512			
	상업, 서비스g	37	3.48	.593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h	2	3.37	.801			
	생산, 운송설비 관련자i	3	3.73	.200			
	기타 업종 종사자j	95	3.62	.592			
생활수준	하a	140	3.39	.596	18.458***	.000	c>a,b
	중b	353	3.65	.527			
	상c	19	4.05	.645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57	3.56	.519	1.900	.093	
	고등학교 졸업	35	3.59	.496			
	전문대 재학/졸업	161	3.50	.573			
	대학생 재학/졸업	149	3.65	.617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	63	3.69	.539			
	대학원 박사 재학/졸업	47	3.68	.524			
키	작음	91	3.51	.471	1.804	.166	
	보통	329	3.60	.610			
	큼	92	3.67	.502			

		N	M	SD	t/F	p	Scheffe
몸무게	마른 편 ^a	16	3.39	.776	2.453*	.045	b>a
	날씬한 편 ^b	103	3.71	.603			
	보통 ^c	169	3.59	.513			
	통통한 편 ^d	195	3.58	.533			
	뚱뚱한 편 ^e	29	3.41	.788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a	46	3.38	.571	20.254***	.000	e>a,b,c, d
	만족하지 않는 편 ^b	208	3.49	.524			
	보통 ^c	118	3.64	.559			
	만족하는 편 ^d	123	3.68	.505			
	매우 만족 ^e	17	4.60	.491			
최근 1년동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	있다	302	3.61	.544	.482	.630	
	없다	210	3.58	.607			
체중 줄이기에 대한 생각	매우 어려웠다 ^a	110	3.48	.579	2.526*	.040	e>a
	어려웠다 ^b	210	3.58	.545			
	보통이다 ^c	113	3.65	.540			
	쉬웠다 ^d	52	3.69	.606			
	매우 쉬웠다 ^e	27	3.78	.699			

* $p<.05$, ** $p<.01$, *** $p<.001$

직업에 따라서는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가 3.89점, 뷰티업 종사자가 3.83점으로 타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은 3.37점으로 타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F=2.430$,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보다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가 3.39점, 중이 3.65점, 상이 4.05점으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F=18.458$,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중, 하보다 상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몸무게에 따라서는 마른 편이 3.39점, 날씬한 편이 3.71점, 보통이 3.59점, 통통한 편이 3.58점, 뚱뚱한 편이 3.41점으로 날씬한 편인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2.453$, $p<.05$)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마른 편 보다 날씬한 편인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불만족이 3.38점, 만족하지 않는 편이 3.49점, 보통이 3.64점, 만족하는 편이 3.68점, 매우 만족이 4.60점으로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F=20.254$,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매우 불만족, 만족하지 않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보다 매우 만족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체중 줄이기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3.48점, 어려웠다가 3.58점, 보통이다가 3.65점, 쉬웠다가 3.69점, 매우 쉬웠다가 3.78점으로 체중 줄이기가 쉬웠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F=2.526$, $p<.05$)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매우 어려웠다보다 매우 쉬웠다고 답한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4-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채택되었다.

<연구가설 5-1>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서로 다를 것이다.

<표 4-24> 신체매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상수)	2.394	.111		21.663	.000		
신체매력	.212	.051	.181	4.146***	.000	1.000	1.000
F=17.190*** $p<.001$ $R^2=.033$							

*** $p<.001$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3.3%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17.190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신체매력($\beta=.181$,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매력이 높아지면 외모관리행동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매력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은 17.2%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20.96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신체매력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상수)	1.828	.130		14.104	.000		
얼굴	.151	.052	.170	2.879**	.004	.471	2.123
몸매	-.043	.051	-.052	-.846	.398	.439	2.278
피부	-.015	.041	-.020	-.353	.724	.490	2.042
헤어	-.104	.041	-.144	-2.516*	.012	.497	2.014
패션	.323	.043	.424	7.531***	.000	.515	1.940
F=20.962*** $p<.001$ $R^2=.172$							

* $p<.05$, ** $p<.01$, *** $p<.001$

신체매력지각의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얼굴($\beta=.170$, $p<.01$), 패션($\beta=.424$,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반면에 헤어($\beta=.144$, $p<.05$)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얼굴, 패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외모관리행동도 높아지고 반면에 자신의 헤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외모관리행동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패션, 얼굴, 헤어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5-1〉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서로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되었다.

〈연구가설 5-2〉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서로 다를 것이다.

신체매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의 결과는 다음의 〈표 4-26〉과 같다.

모델 1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하여 신체매력이 투입된 모델로서 3.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 change=17.190, $p<.001$) 신체매력($\beta=.212$,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4-26〉 신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신체매력	1	.212	.181***	.113	.096*	.456	.387
자아존중감	2			.226	.220***	.429	.417*
1*2						-.094	-.413
상수		2.394		1.782		1.051	
R ²		.033		.074		.077	
Adj R ²		.031		.070		.071	
R ² change		.033***		.041***		.003	
F change		17.190		22.650		1.558	

* $p<.05$, ** $p<.01$, *** $p<.001$

이는 신체매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델 2는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결과이다. 모델 2의 설명력은 7.4%로 4.1% 증가하였다.(F change=22.650, $p<.001$) 모델 2에서는 신체매력($\beta=.096$, $p<.05$), 자아존중감($\beta=.220$,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매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신체매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서 신체매력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7.7%로 0.3% 증가하여 모델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1.558, $p>.05$) 즉 신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의 결과는 다음의 <표 4-27>과 같다.

모델 1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하여 신체매력이 투입된 모델로서 3.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 change=17.190, $p<.001$) 신체매력($\beta=.212$,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매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27> 신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신체매력	1	.212	.181***	.119	.101*	.407	.346
자기효능감	2			.256	.250***	.425	.415*
1*2						-.080	-.339
상수		2.394		1.668		1.064	
R ²		.033		.089		.091	
Adj R ²		.031		.085		.086	
R ² change		.033***		.056***		.002	
F change		17.190		31.486		1.099	

* $p<.05$, *** $p<.001$

모델 2는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결과이다. 모델 2의 설명력은 8.9%로 5.6% 증가하였다.(F change=31.486, $p<.001$) 모델 2에서는 신체매력($\beta=.101$, $p<.05$), 자기효능감($\beta=.250$,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매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신체매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서 신체매력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설

명력은 9.1%로 0.2% 증가하여 모델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1.099, $p>.05$) 즉 신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매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결과는 다음의 <표 4-28>과 같다.

모델 1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하여 헤어매력이 투입된 모델로서 2.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 change=12.927, $p<.001$) 헤어매력($\beta=.157$,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헤어매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28>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헤어매력	1	.114	.157***	.043	.059	-.013	-.018
자아존중감	2			.238	.232***	.030	.029
1*2						.044	.285***
상수		2.476		1.838		2.237	
R ²		.025		.069		.089	
Adj R ²		.023		.065		.084	
R ² change		.025***		.044***		.021***	
F change		12.927		24.115		11.474	

*** $p<.001$

모델 2는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결과이다. 모델 2의 설명력은 6.9%로 4.4% 증가하였다.(F change=24.115, $p<.001$) 모델 2에서는 자아존중감($\beta=.232$,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헤어매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서 헤어매력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8.9%로 2.1% 증가하여 모델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11.474, $p<.001$) 헤어매력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β

=.285,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에서 자아존중감이 헤어매력의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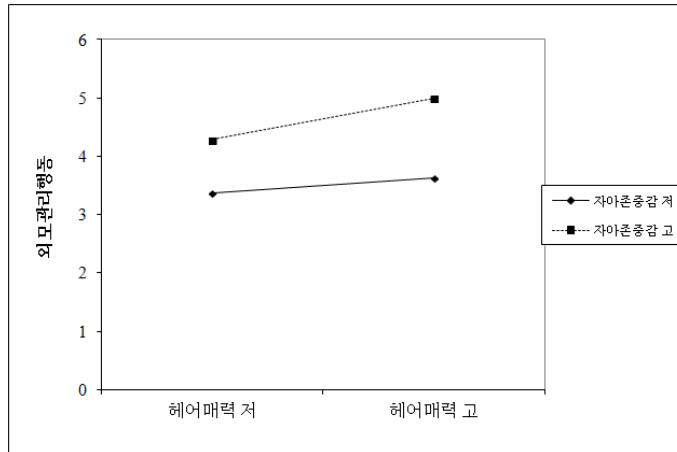
헤어매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결과는 다음의 <표 4-29>와 같다.

모델 1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하여 헤어매력이 투입된 모델로서 2.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 change=12.927, $p<.001$) 헤어매력($\beta=.157$,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헤어매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29>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헤어매력 1	.114	.157***	.044	.061	-.018	-.025
자기효능감 2			.266	.260***	.077	.075
1*2					.043	.271***
상수	2.476		1.741		2.102	
R ²	.025		.083		.103	
Adj R ²	.023		.079		.098	
R ² change	.025***		.058***		.020***	
F change	12.927		32.347		11.328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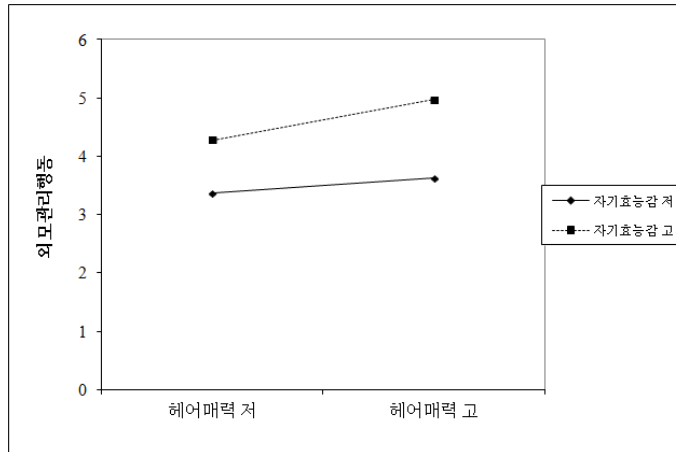
〈그림 4-1〉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모델 2는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결과이다. 모델 2의 설명력은 8.3%로 5.8% 증가하였다.(F change=32.347, $p<.001$) 모델 2에서는 자기효능감($\beta=.260$,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헤어매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서 헤어매력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0.3%로 2.0% 증가하여 모델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11.328, $p<.001$) 헤어매력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beta=.271$,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이 헤어매력의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즉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5-2〉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

다.



〈그림 4-2〉 헤어매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표 4-30〉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 1-1〉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는 여성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1-2〉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는 서로 다를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2-1〉 여성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를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2-2〉 여성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를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1〉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부분채택
〈연구가설 3-2〉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4-1〉 여성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신체매력 형성요인(화장, 미용성형)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4-2〉 연구 참가자의 개인특성(일반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부분채택
〈연구가설 5-1〉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서로 다를 것이다.	부분채택
〈연구가설 5-2〉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서로 다를 것이다.	부분채택

V. 결론 및 논의

5.1 결론

아름다움의 힘과 역할은 무엇이고, 아름다움이 여성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기에 인류 역사 내내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왔을까.

본 연구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적 심리와 인식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즉 여성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이다.

오늘날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선천적인 것은 물론 후천적인 화장, 미용성형에 의한 것까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 선천적, 후천적인 영향요인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하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설문문을 통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다섯 가지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가?

중국의 여성들은 저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피부나 헤어라고 여기는 여성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패션을 자신의 신체매력이라고 한 여성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얼굴과 피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반면, 몸매를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이라고 여기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중국의 여성들이 얼굴과 피부에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중점 뷰티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달라지는가?

중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도 높았다.

또한 자신이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었으며, 신체매력의 요인이 후천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여성들이 자신의 뷰티에 대한 관심과 뷰티관리행동에 의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만족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여성 자신을 둘러싼 내외의 기대심리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여성들이 인류역사 내내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이유가 아닐까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여성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요소, 그리고 지각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중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 몸매, 피부, 패션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순위는 얼굴, 피부, 몸매, 패션 순이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 몸매, 피부, 패션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신체매력이 높아지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곧 중국 여성들이 자신을 아름답고 매력적인 신체를 가꾸기 위한 이유가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여성들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대인관계 등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물론, 자신이 사회활동에서 상대적인 우월적 입장과 역량을 견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넷째,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신체매력 형성요인(선천적 요인, 후천적 요인)과 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중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매력 형성요인 중 선천적인 요인이 후천적인 요인보다 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화장, 미용성형, 패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 조사결과는 중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형성하는 요인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연출하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의 효과에 관해 차이를 느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중국 여성들은 기본적으로는 선천적인 아름다움이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아름다움과 매력의 조건이기는 하나, 후천적인 화장이나 미용성형 등 뷰티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신체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극복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국 여성들은 미용성형이 화장이나 패션보다는 신체매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매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에 따른 신체매력 지각 정도, 그리고 그것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후천적인 요인보다 선천적인 요인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20~25세의 젊은 여성보다는 56~60세의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 기혼보다는 이혼 여성의 경우가 신체매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키가 크고 날씬할수록 신체매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자신의 체형만족도에 따른 신체매력지각은 체형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매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체중을 줄이기가 쉬운 여성일수록 신체매력지각을 더 크게 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미혼보다 이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의 높은 직위, 높은 생활수준, 높은 학력, 몸무게가 마른편이 아니고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미혼이나 기혼보다 이혼 여성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거주여성이, 도시거주보다는 농어촌이나 산촌 거주 여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의 높은 직위, 높은 생활수준, 날씬한 여성,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중줄이기가 쉬울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다섯째, 서로 다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진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기대치와 한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다른가?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매력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자신의 얼굴과 패션이 헤어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었는데, 이 조사결과는 중국의 여성들이 신체 요소 중 얼굴이 차지하는 매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도 얼굴관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얼굴의 매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패션을 통해 자신을 매력적으로 연출하는 감각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여성의 외모관리 우선순위가 패션, 얼굴, 헤어의 순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 여성들은 얼굴이나 헤어 외에 패션에 대한 관심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션에 대한 관심은 뷰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모든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 정도에 따라 신체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기대치와 한계의 인식도 달랐다. 예컨대 헤어가 매력적이라고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외모관리행동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헤어매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알 수 있다. 중국 여성에게 있어서 헤어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신체매력을 발산하는 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하게 한

다.

중국 여성 대부분은 신체매력이 클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전의 연구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적 심리와 인식, 즉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은 조사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뷰티숍, 뷰티업체, 뷰티용품업체, 미용성형업체, 화장품업체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과 전술의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실무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적 심리와 인식, 즉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은 조사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학술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뷰티숍, 뷰티업체, 뷰티용품업체, 미용성형업체, 화장품업체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과 그 전술적 수행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실무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5.2 논의

본 연구자는 맨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하며 120여 편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찾아서 목록화했다. 관련 연구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분석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창적이지 않은 유사 연구, 중복연구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그 연구들을 본 연구자가 또다시 인용하고 참고문헌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증이 불가능한 주제연구, 연구문제가 없는 연구, 변수의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논문, 잘못된 가설을 검증하는 설문, 조사참여자의 일반사항을 주요 연구결론으로 기술하고 있는 연구 등은 본 연구자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게 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주제 선정, 목차 구성, 연구절차와 연구방법 선택, 연구문제와 가설설정, 서론 포함사항과 각 부분 내용의 기술, 선행연구 리뷰 및 배경이론 제시, 실증조사 도구개발과 조사 실시, 조사자료 분석, 연구결과의 결론 정리, 초록 기술 등 전반의 사항을 최대한 연구방법론 교과서를 따랐다. 원칙에 입각한 착실한 뷰티연구가 뷰티의 학문적 발전과 뷰티업계, 뷰티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조사 샘플링이 그렇다.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중국의 도시를 크기별로 나누어 조사했지만, 수억 명의 중국 여성을 대표하는 샘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중국 여성을 대표하는 샘플링 방법을 찾는 것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공통 과제다.

앞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명주. (2014). “눈 화장에 따른 형태변화와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석기. (2003). 청소년의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0(3), pp.155-180.
- 고석주, 정진경. (1992).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 8(1), pp.33-70.
- 권대훈. (2009). 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이 학습방향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생지도연구』, 15, pp.34-64. 안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경화, 김덕하. (2009). 실버 여성의 유행선도력과 기초화장품 태도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5 No.3
- 김동욱. (2020). 요즘 애들에게 팝니다, 청림출판, pp. 147-149.
- 김유성. (2010). “자기애성향별 신체매력성 지각이 미용추구혜택 및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란. (2012). 여대생의 외모관리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미용학회, 『대한미용학회지』 Vol.8 No.3
- 김영란, 이화정. (2007). 대학생의 외모향상에 관한 태도연구, 한국미용학회, 『한국미용학회지』, 13권 1호, pp.403-413
- 김은옥. (2002).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규. (2017). “핵심자기평가 구성개념의 평가 및 척도개발과 타당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희, 박옥련. (2010). 남녀대학생의 외모관리 동기가 패션추구 이미지와 지

- 속적 정보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 『한국미용학회지』, 16권 2호, pp.531-541
- 김지양, 임은혁, 전호경. (2013). 여대생의 자기이미지와 미디어관여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7)2, pp.164-178
- 김희자, 권혜진. (2014). 청소년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화장품 사용실태와 구매 행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2권 3호, pp.353-359.
- 명광주. (2006). “아트워크 양식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9-50.
- 박선애, 김주연. (2007). 학령기아동의 외모만족도 및 색조화장품 사용실태조사, 한국미용학회, 『한국미용학회지』, 13권 2호, pp.458-466
- 박영희. (2010). “1980년대 이후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따른 재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정훈. (1990).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인선, 고경숙. (2011). 성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과 모발,두피관리 성향이 제품 구매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 『한국미용학회지』, 17권 4호, pp.669-679
- 백경진, 김미영. (2004). 화장행동과 영향 변인 연구,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 학회지』, 제28권 제7호, pp.892-903
- 설현진, 최인려. (2010). 중고등학교 여자청소년의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 문화연구』, 18(3), pp.514-525
- 송태경. (2005). “직장인의 신체적 매력만족과 직무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강수. (2016). 연령별 외모만족도가 직업적응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2권 제3호, pp.307-317

- 원호택, 박현순. (2001). 인간관계와 적응. 서울대 출판부, pp.187-268.
- 이명희. (2009).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59권 제8호, pp.97-109
- 이명희, 이은실. (199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21(6), pp.1072-1081
- 이명희, 전경란. (2003).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제27권 제6호, pp.643-653
- 이민지, 정성지, 안미선. (201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 얼굴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제39권 제3호, pp.323-336
- 이승자, 박용. (2011). 여성의 연령에 따른 외모관심도와 피부인식 및 피부관리행동, 한국 인체미용 예술학회, 『한국 인체미용 예술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01 - 112
- 이승희, 박길순. (2011). 한국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복식문화연구』, 19(5), pp.1075-1087
- 이종순. (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양상 분석, 한국미용학회, 『한국미용학회지』, Vol.14 No.2
- 이주미. (2017). “중년남성의 미용건강관리행동이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영. (2013).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이혜정, 오인영. (2011). 화장관심도와 정보탐색이 여고생의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인체미용 예술학회, 『한국 인체미용 예술학회지』, 제

12권 제1호, pp.65-84

이현옥, 박경애. (2011). 소비재 제품의 제품 추구혜택, 구매체험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저널』 제13권 제2호

임효정. (2014).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메이크업 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지현. (2014). 젊음 추구가 외모관심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를류학회지』, 35(11), pp.1333-1345

전지현, 이미숙. (2014). 공적 자기의식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이상적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의를류학회, 『한국의를류학회지』, 제34권 제10호, pp.1,731-1,741

전현진, 정명선.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20~30대 여성들의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2), pp.590-601

정경아. (2003). “수학 성취 모형에서 수학 자기효능감의 예측적·매개적 역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명선. (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학회지』.53(3). 165-179

정은주, 김주연. (2008). 피부미용 관련 학위논문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피부미용 향장학회지』 2008년 3권 4호 p.5-19

정학범. (2010). “서번트 리더십이 창의적 행동,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현지. (1991). “자아존중감에 따른 자기확신감의 변화와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호민. (2021). “여성의 루키즘이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

최승용, 이창욱. (2005). 호텔서비스 인카운터에서 종사원의 신체적 매력요인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21, pp. 43-60.

혼마다쓰헤이. (2021). “사게 만드는 법칙”, 매일경제신문사, p8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한국복식학회』, 56(3), 143-155.

홍성태. (2014). “마케팅의 시크릿코드”, 위즈덤하우스, p.175

홍수남. (2013). “한국여성과 이주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현경. (2012). “자기효능감이 직무착근도, 혁신행동과 조직구성원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龙鸿祥, 刘嘉. (Long Hong Xiang & Lu Jia, 2006). 人造美女的文化反思 华中师范大学文学院, 湖北武汉.

杨斌. (Yang Bin, 2011). 健身健美体育：女性身体美的理性回归—湖南长株、潭职业女性的调查, 上海体育学院博士论文

余丹. (Yu Dan, 2019). 美貌的意义：化妆品广告女性受众的经验解读, 暨南大学硕士学位论文.

冯小红. (Feng Xiao Hong, 2008). 整形美容价值及其伦理困境的研究, 苏州大学硕士论文.

- 于洋. (Yu Yang, 2007). 整形美容受术者一般自我效能感与术后满意度的相关性研究, 中国协和医科大学硕士研究生论文.
- 于亮. (Yu Liang, 2012). 高职医疗美容技术专业毕业生就业现状、问题及对策研究, 以上海中医药大学为例, 华东师范大学硕士论文
- 李英华. (Li Ying Hua, 2020). 美好与偏离: 青年女性瘦身心理的质性, 中国青年研究
- 林晶晶. (Lin Jing Jing, 2013). 改造身体的理由, 广州报纸美容整形广告中的身体与心智, 暨南大学硕士学位论文
- 周盈英. (Zhou Ying Ying, 2012). 外貌比较和理想瘦内化对年轻女性身体满意度的影响, 宁波: 宁波大学
- Adams, G. R. (1977).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Human Development*, 28, 217-239.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 Company.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Inc. 34(1), pp.19-31.
- Bandura, A. (1986).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icien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American Psychologist*, 41(12), pp. 1389-1391.
- Barbara L. Fredrickson & Tomi-Ann Roberts.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Bardock, N. R. & McAndrew, F. T. (1985). The influence of physical

- attractiveness and manner of dress on success in a simulated personnel decis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 pp. 777-778.
- Barocas, R. And Karoly, P.(1972). Effect of Physical Appearance on Social Responsiveness. *Psychological Report*, 31, 495-500.
- Baudrillard, J. (2015). *Societe de consommation :see mythes ses structures*(Lee, S. R., Trans.). Seoul: Moonye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0).
- Benson, P. L., Karabenick, S. A. And Lerner, R. M.(1976). Pretty Pleases :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And Sex on Receiving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409-415.
- Berscheid, E. And Walster, E. (1974). *Physical Attractiveness. In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Academic Press, San Diego. 7, pp.157-21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 Esteem. Freeman, San Francisco, pp.4-5.
- Dipboye, R. L., Arvey, R. D. and Terpstra, D. E. (1977).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Rater and Applicants as Determinants of Resume Evalu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228-294.
- Dipboye, R. L., Fromkin, H. L. And Wibach, K. (1975). Relative Importance of Applicant Sex, Attractiveness And Scholastic Standing in Evaluations of Job Applicant Resu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 39-43.
- Elliot, G. C. (1986). Self-Esteem And Self Consistency: a Theoretical And

- Empirical Link Between Two Primary Motiva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218–297.
- Fredrickson & Roberts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 Gabriel, M. T., Critelli, J. W., & Ee, J. S. (1994). Narcissistic illusions in self-evaluations of intelligence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62 145–155
-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Hurlock. (1976). *Developmental Psychology* Fourth Edition.
- Jex & Bliese. (1999). Efficacy beliefs as a moderator of the impact of work-related stressors: a multilevel study.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 Kaiser, Susan.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Fashion :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2nd ed.), NY : Macmillan. p.67.
- Karraker, Katherine H. (1986). Adult Attention to Infants in Newborn Nursery, *Nursing Research*, 35, 358–363.
- Leary, M. R. (1995). *Self-Presentation : Management and Interpersonal Behavior*. West View, Boulder, pp. 1–343.
- Lee, H. S. & Park, S. H. (2006). Comparative study the difference about hair preference and behavior by different age group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2(1), 167–176.
- Lee, M. H. (2000). The Purchasing Behavior and Use of Cosmetics Associated

- with Self-Monitoring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8(5), p.771-776.
- Lennon, Sharron Nancy A. Rudd. Bridgett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 Application of a Mod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Lerner, R. M. And Karabenick, S. A. (1974). Physical Attractiveness, Body Attitudes And Self Concept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307-316.
- Maddux. (1995).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Mendelson, B. K., McLaren, L., Gauvin, L. And Steiger, H. (2002). The Relationship of Self Esteem And Body Esteem in Women With And Without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318-323.
- Miller, C. T. (1982). The Role of Performance Related Similarity in Social Comparison of Abilities: a Test of The Related Attributes Hypothe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3), 513-523.
- Reis, Harry T., Ladd Wheeler, Nancy Spiegel, Michael H Kernis, John Nezlek And Michael Perri. (1982). Physical Attractiveness in Social Interaction: II Why Does Appearance Affect Soci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5), 979-996.
- Renz, Ulrich(2006), 박승재 역. (2008). 아름다움의 과학: 미인불패, 새로운 권력의 발견, 웅진씽크빅.
- Reilly, Andrew And Nancy A. Rudd(2009). Social Anxiety as Predictor of Personal Aesthetic Among Women, *Clothing And Textiles*

- Research Journal*, 27(3), 227-239.
- Reilly, Andrew, Nancy Rudd And Julie Hillery. (2008). Shopping Behavior Among Gay Men : Issues of Body Ima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6(4), 313-326.
- Rhode, Deborah L.(2010), 권기대 역. (2011). 아름다움이란 이름의 편견, 베가북스.
- Roach, M. E. & Eicher, J. B. (1973).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pp.45-4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lenker, B. R. (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 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Brooks Cole.
- Schunk D. H. (1981). Modelling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 A Self- 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93-105.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1), 48-58.
-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 Jacobs. (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First Published.
- Stone, G. P., (1965). *Appearance and the self*. In M. E. Roach and J. B. Eiche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pp. 216-245. York : New John Wiley & Sons.
- Rudd, Nancy And Sharron J. Lennon.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Secord, P. And Jourard, S. (1954). Body size And body cathexis. *Journal*

- of Consulting Psychology*, 18(3), 184–185. Monterey, pp.1–286.
- Simmon, R. G. And Resenberg, F. (1975). Sex, Sex Roles And Self Im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cence*, 4, 229–258.
- Thompson, J. K. And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Tucker, L. A. (198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matotype And Body Cathexis of College Males*. Psychological Report, p.50, pp. 983–989.
- Wells, L. E. And Marwell, G. (1976). *Self Esteem :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20, 59.
- West, S. C. And Brown, T. J. (1975). Physical Attractiveness, Severity of Emergency And Helping : Feild Experimental And Interpersonal Simul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531–538.
- West, S. C. And Brown, T. J. (1975) Physical Attractiveness, Severity of Emergency And Helping : Feild Experimental And Interpersonal Simul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531–538.
- Zimmerman, B. J. (2000).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82–91.

부록1

한국어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에 필요한 여성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것 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번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의무)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당신의 설문에 대한 응답 등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통계분석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설문들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질문 문항별로 빠짐없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조사, 또는 연구결과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지도교수 명 광 주
박사과정 마 소 옥
316770788@qq.com

<첫째, 당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지각에 관한 설문>

1. 당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2. 당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얼굴 ② 몸매 ③ 피부 ④ 헤어 ⑤ 패션

3. 당신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은 각 요소별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체매력지각 요소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	보통	매력적이 다	매우 매력적이다
1	얼굴	얼굴형	①	②	③	④	⑤
2		눈	①	②	③	④	⑤
3		코	①	②	③	④	⑤
4		입	①	②	③	④	⑤
5		턱	①	②	③	④	⑤
6	몸매	목	①	②	③	④	⑤
7		팔	①	②	③	④	⑤
8		가슴	①	②	③	④	⑤
9		허리	①	②	③	④	⑤
10		배	①	②	③	④	⑤
11		히프	①	②	③	④	⑤
12		허벅지	①	②	③	④	⑤
13		다리	①	②	③	④	⑤
14		신체비례	①	②	③	④	⑤
15		전체적인 몸매	①	②	③	④	⑤
16	피부	피부결	①	②	③	④	⑤
17		피부색	①	②	③	④	⑤
18	헤어	머릿결	①	②	③	④	⑤
19		헤어스타일	①	②	③	④	⑤
20	패션	패션스타일	①	②	③	④	⑤
21		명품브랜드	①	②	③	④	⑤

4. 당신이 가장 크고 중요하게 느끼는 당신의 신체매력은 선천적인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미용성형에 의한 것입니까?

- ① 선천적 ② 후천적

5. 당신의 후천적인 신체매력은 미용성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이나 패션 등에 의한 것입니까?

- ① 미용성형 ② 화장 또는 패션

<둘째,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높이기 위한 당신의 미용성형 경험과 계획에 관한 설문>

6. 당신은 미용성형을 하셨습니까?

- ① 했다. ② 하지 않았다.

7. 당신이 한 미용성형을 아래에서 순서대로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①눈 ②코 ③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속눈썹, 입술, 이마헤어라인) ④얼굴윤곽(턱, 광대뼈, 이마, 입) ⑤치아(교정, 미백, 보철) ⑥피부(여드름, 점 기미 주근깨, 보톡스, 레이저박피, 주름제거) ⑦지방흡입 또는 주입 ⑧가슴 확대 또는 축소 ⑨제모(팔, 다리, 겨드랑이) ⑩모두 하지 않았다

8. 앞으로 당신은 미용성형을 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하고 싶다. ② 하고 싶지 않다.

9. 당신은 왜 미용성형을 하려고 하십니까?

- 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 ② 자신감을 얻기 위해
- ③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 ④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 ⑤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 ⑥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 ⑦ 취업을 위해
- ⑧ 연애 또는 결혼을 위해
- ⑨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 ⑩ 돈을 모으기 위해

10. 앞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미용성형을 아래에서 순서대로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①눈 ②코 ③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속눈썹, 입술, 이마헤어라인)
 ④얼굴윤곽(턱, 광대뼈, 이마, 입) ⑤치아(교정, 미백, 보철)
 ⑥피부(여드름, 점 기미 주근깨, 보톡스, 레이저박피, 주름제거)
 ⑦지방흡입 또는 주입 ⑧가슴 확대 또는 축소 ⑨제모(팔, 다리, 겨드랑이) ⑩모두 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관한 설문>

자아존중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1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자랑스런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쓸모가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남들만큼 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넷째,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

자기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마음먹은 일을 해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뜻밖의 상황을 접해도	①	②	③	④	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노력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가 세운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중요한 일은 끝까지 노력해서 달성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무슨 일이든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어려움이 여러 번 닥쳐오더라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상황과 형편이 힘들더라도,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섯째, 아름다움과 신체매력 증대를 위한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설문>

외모관리행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	나는 몸매를 위해 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저칼로리 음식을 골라 먹는다					
36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물(살 빼는약, 이뇨제, 설사제)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체중조절을 위해 구토를 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헤어스타일을 위해 무스, 헤어젤, 왁스 등을 바른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헤어스타일을 위해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하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연예인의 옷차림을 모방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최신 유행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매일 기초화장(스킨, 로션)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늘 눈썹을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집에서 대부분	①	②	③	④	⑤

	외모관리를 한다					
45	나는 뷰티숍을 이용하여 외모관리를 한다 (네일숍,헤어숍,피부숍, 메이크업숍등)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정기적으로 뷰티관리 전문점을 이용하여 외모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정기적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병원을 이용하여 외모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후천적인 뷰티관리행동인 화장, 피부관리, 헤어관리 등의 신체매력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좀 더 나은 외모의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미용성형을 했거나, 할 계획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여섯째, 아름다움과 신체매력에 관심을 가진 당신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

50. 당신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세~25세 ③ 26세~30세 ④ 31세~ 35세
⑤ 36세~40세 ⑥ 41세~45세 ⑦ 46세~50세 ⑧ 51세~ 55세
⑨ 56세~60세 ⑩ 61세~65세 ⑪ 66세~70세 ⑫ 71세~ 75세

51. 당신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52. 당신의 거주 지역은?

- ① 대도시 ② 중도시 ③ 소도시 ④ 농어촌 또는 산촌

53. 당신의 직업은?

- ① 대학생 ② 주부 ③ 뷰티업 종사자 ④ 국가기관, 당, 군중조직,
기업, 사업단위 책임자 ⑤ 전문기술자 ⑥ 사무직 관련자 ⑦ 상업,
서비스 ⑧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⑨ 생산, 운송설비 관련자 ⑩
군인 ⑪ 기타 업종 종사자

54. 당신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 ① 하 ② 중 ③ 상

55. 당신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재학/졸업 ④
대학생 재학/졸업 ⑤ 대학원 석사 재학/ 졸업 ⑥ 대학원 박사 재학/
졸업

56. 당신의 키는 얼마입니까?

- ① 작음 ② 보통 ③ 큼

57. 당신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 ① 마른편 ② 날씬한편 ③ 보통 ④ 통통한편 ⑤ 뚱뚱한편

58. 당신은 현재 체형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만족하지 않는 편 ③ 보통
④ 만족하는 편 ⑤ 매우 만족

59. 당신은 최근 1년동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60. 체중 줄이기는 어떠한 편이었습니까?

-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어려웠다 ③ 보통이다
④ 쉬웠다 ⑤ 매우 쉬웠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중국어 설문지

您好！

本问卷是为了我的博士论文研究主题所需要的女性们的反馈调查。

调查结果根据《统计法》进行严格保密。对问卷的所有回答和个人事项都将
以无记名方式处理，除统计分析的目的之外，绝不用于其他方面使用。问卷
没有正确答案，请您根据自己的真实情况如实填写。

如果您对本研究或对研究结果有疑问，请通过以下联系方式咨询，我将最大
努力给予答复。

再次感谢您参与问卷调查。

2021年 11月
汉城大学 一般大学院
艺术设计管理学
指导教师 明光周
博士课程 马晓旭
316770788@qq.com

<1. 关于您的美丽和身体魅力的调查>

1. 您觉的您的美丽和身体魅力怎么样？

- ① 低 ② 普通 ③ 高

2. 您觉的您的美丽和身体魅力在哪里？

- ① 脸 ② 身材 ③ 皮肤 ④ 发型 ⑤ 时尚

3. 您觉得您的美丽和身体魅力在各个方面如何？

身体魅力认知因素			绝对没魅力	没有魅力	一般	有魅力	非常有魅力
1	脸	脸型	①	②	③	④	⑤
2		眼睛	①	②	③	④	⑤
3		鼻子	①	②	③	④	⑤
4		嘴	①	②	③	④	⑤
5		下巴	①	②	③	④	⑤
6	身材	颈部	①	②	③	④	⑤
7		胳膊	①	②	③	④	⑤
8		胸	①	②	③	④	⑤
9		腰	①	②	③	④	⑤
10		肚子	①	②	③	④	⑤
11		臀部	①	②	③	④	⑤
12		大腿	①	②	③	④	⑤
13		腿	①	②	③	④	⑤
14		身材比例	①	②	③	④	⑤
15		整体身材	①	②	③	④	⑤
16	皮肤	皮肤纹理	①	②	③	④	⑤
17		肤色	①	②	③	④	⑤
18	发型	发质	①	②	③	④	⑤
19		发型	①	②	③	④	⑤
20	时尚	时尚风格	①	②	③	④	⑤
21		名牌	①	②	③	④	⑤

4. 您最大的，最重要的身体魅力是天生的还是后天美容整形的？

- ① 天生的 ② 后天的

5. 您后天的身体魅力是因为美容整形还是化妆？

- ① 美容整形 ② 化妆或时尚

<2. 关于您的提升美丽和身体魅力的美容整形经验和计划的调查>

6. 您做过美容整形吗？

- ① 做过 ② 没做过

7. 按顺序选择号码填写您做过的美容整形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①眼睛 ②鼻子 ③半永久(眉毛, 眼线, 睫毛, 嘴唇, 额头发际线) ④脸部轮廓(下巴, 颧骨, 额头, 嘴) ⑤牙齿(矫正, 美白, 补缀) ⑥皮肤(青春痘, 痣, 黑痣, 雀斑, 肉毒素, 激光剥皮, 祛皱) ⑦吸脂或填充 ⑧丰胸或缩胸 ⑨脱毛(胳膊, 腿, 腋下) ⑩全部没有做过

8. 以后您打算做美容整形吗？

- ① 想做 ② 不想做

9. 您为什么要做美容整形？

- ① 为了自己的满足
② 为了获得自信感
③ 为了提高自我尊重感
④ 为了提高我的价值
⑤ 为了提高自我效能感
⑥ 为了消除对外貌的不安感
⑦ 为了就业

- ⑧ 为了恋爱或者结婚
- ⑨ 为了社会认可
- ⑩ 为了赚钱

10. 请按下列顺序选好您以后想做的美容整形.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①眼睛 ②鼻子 ③半永久(眉毛, 眼线, 睫毛, 嘴唇, 额头发际线) ④脸部轮廓(下巴, 颧骨, 额头, 嘴) ⑤牙齿(矫正, 美白, 补缀) ⑥皮肤(青春痘, 痣 黑痣 雀斑, 肉毒素, 激光剥皮, 祛皱) ⑦吸脂或填充 ⑧丰胸或缩胸 ⑨脱毛(胳膊, 腿, 腋下) ⑩全都不想做

<3. 关于美丽和身材魅力带来的自我尊重感的调查>

自我尊重感		绝对不是	不是	不知道	是的	非常认可
11	我是个有价值的人	①	②	③	④	⑤
12	我是个有高素质的人	①	②	③	④	⑤
13	我是骄傲的人	①	②	③	④	⑤
14	我是成功的人	①	②	③	④	⑤
15	我对我自己很乐观	①	②	③	④	⑤

16	我是个能成事的人	①	②	③	④	⑤
17	我能和别人一样工作	①	②	③	④	⑤

<4. 关于美丽和身体魅力产生的自我效能感的调查>

自我效能感		绝对不是	不是	不知道	是的	非常认可
18	我有难事只要努力就可以解决	①	②	③	④	⑤
19	我认为办成心事没有问题	①	②	③	④	⑤
20	我认为即使遇到意外情况，我也能应付好	①	②	③	④	⑤
21	我相信我的能力，任何时候都可以不慌不忙	①	②	③	④	⑤
22	我只要努力，大部分问题都能解决好	①	②	③	④	⑤
23	我有能力克服困难	①	②	③	④	⑤
24	我感觉的事情不对劲，就赶紧纠正过来	①	②	③	④	⑤
25	我什么事都可以办的准	①	②	③	④	⑤
26	我能完成我制定的大部分目标	①	②	③	④	⑤
27	我觉得我即使面临难题也能解决它	①	②	③	④	⑤
28	我认为要紧的事，总能努力完成	①	②	③	④	⑤

29	我认为什么事只要努力，就能成功	①	②	③	④	⑤
30	困难迭来，我也能成功克服	①	②	③	④	⑤
31	我确信能做好各种事情	①	②	③	④	⑤
32	我宁可情况艰苦，也能把事情做好	①	②	③	④	⑤

<5. 关于增加美丽和身体魅力的外貌管理行动的调查>

	外貌管理行动	绝对不是	不是	不知道	是的	非常认可
33	我为了身材而运动	①	②	③	④	⑤
34	我为了减肥少吃东西	①	②	③	④	⑤
35	我为了减体重，挑低热量的食物吃	①	②	③	④	⑤
36	我为了减体重而服用药物（减肥药，利尿剂，腹泻药）	①	②	③	④	⑤
37	我为了控制体重进行催吐	①	②	③	④	⑤
38	我为发型涂摩丝，发胶和发蜡等	①	②	③	④	⑤
39	我为了发型，用吹风机吹头发	①	②	③	④	⑤
40	我模仿艺人的穿着	①	②	③	④	⑤
41	我随身带着最新流行的衣服或饰品	①	②	③	④	⑤

42	我每天做基础护肤（爽肤水，乳液）	①	②	③	④	⑤
43	我经常整理眉毛	①	②	③	④	⑤
44	我在家大部分时间都在管理外貌	①	②	③	④	⑤
45	我利用美业店（美甲店，发型店，皮肤店，化妆店等）管理外貌	①	②	③	④	⑤
46	我定期利用皮肤管理专门店进行外貌管理	①	②	③	④	⑤
47	我定期利用皮肤科或整形外科等医院进行外貌管理	①	②	③	④	⑤
48	我认为通过后天的美业管理行动化妆，皮肤管理，头发管理等身体魅力的管理，可以持续的变美	①	②	③	④	⑤
49	我为了更好的外貌和身体魅力做了美容整形或者有打算做	①	②	③	④	⑤

<6. 关于你对美丽和身体魅力感兴趣的一般人口统计学特点的调查>

50. 您的年龄？

- ① 20岁以下 ② 20~25岁 ③ 26~30岁 ④ 31~ 35岁
 ⑤ 36~40岁 ⑥ 41~45岁 ⑦46~50岁 ⑧ 51~ 55岁
 ⑨ 56~60岁 ⑩ 61~65岁 ⑪66~70岁 ⑫ 71~ 75岁

51. 您是否结婚？

- ① 未婚 ② 已婚 ③ 离婚

52. 您所居住的城市？

- ① 大城市(北上廣深) ② 中等城市(省级市)
③ 小城市(地级市) ④ 农渔村或山村(县城, 乡镇村)

53. 您的职业是？

- ① 大学生 ② 家庭主妇 ③ 美业从业者 ④ 国家机关, 党, 群众组织, 企业, 事业单位负责人 ⑤ 专业技术人员 ⑥ 办事人员和相关人员 ⑦ 商业, 服务人员 ⑧ 农, 林, 牧, 渔业人员 ⑨ 生产, 运输设备相关人员 ⑩ 军人
⑪ 其他从业人员

54. 您的收入和生活水平是？

- ① 下 ② 中 ③ 上

55. 您的最终学历是？

- ① 高中以下学历 ② 高中毕业 ③ 大专在读/毕业 ④ 本科在读/毕业
⑤ 研究生院硕士在读/ 毕业 ⑥ 研究生院博士在读/ 毕业

56. 您的身高是？

- ① 偏矮 ② 偏中等 ③ 偏高

57. 您的体型是？

- ① 超瘦 ② 苗条 ③ 普通 ④ 微胖 ⑤ 肥胖

58. 您对现在的体型满意吗？

- ① 非常不满意 ② 不满意 ③ 普通
④ 满意 ⑤ 非常满意

59. 您最近一年有没有为了减肥努力过？

- ① 有 ② 没有

60. 您觉得减肥容易吗？

- ① 非常难 ② 难 ③ 普通

- ④ 简单 ⑤ 非常简单

感谢您回答的问卷调查

ABSTRACT

The effect of women's own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ion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hinese women's
beauty and body attractiveness-

MA XIAOXU

Major in Beauty Design Management

Dept. of Media Desig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Women have pursued beauty throughout human history. What does beauty mean for women, and why are women constantly trying to be beautiful?

This study, which examined the effect of inner psychology and perception of women's beauty on themselves,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innate and acquired factors on the influence of women's own beauty and body attractiveness perception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e study collected previous studies and conducted a literature analysis on them, and an empirical survey of 60 questions in six areas targeting a

total of 700 Chinese women was conducted, and 512 copies, excluding 188 copies with improper answer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statistics program 22.0 and the results were synthesized. The results are given as follows.

First, Chinese women perceive their beauty and body charm differently. Women who see their beauty and body charm in their skin or hair tend to consider their beauty and body charm relatively lower than other women, and women who pick fashion their body charm feel their beauty and body charm relatively greater than other women. In addition, Chinese women often equate their beauty and body charm to their face and skin, while a relatively few women regard their body shape as their beauty and body charm. This means that Chinese women have greater confidence in their faces and skin, and consider these as key beauty care targets that they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Second, Chinese women have highe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f they perceive their beau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more acutely. In addition, the greater the perception of beau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the more active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s, and the more active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gets, in particular when they perceive the factor of physical attractiveness is something to be acquired. This is evidence that Chinese women think they can be beautiful by their interest in beauty and beauty management behavior. In other words, they recognize that their beauty is necessary for their own satisfaction and social life, and is worth it. Furthermore, it can be identified that Chinese women who make efforts to enhance their beau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will continue as long as there are their own and external

expectations surrounding themselves and their activities by recognizing that they have highe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s they keenly perceive their beauty and body attractiveness. It is thus possible to infer that this might be the reason why women have pursued beauty throughout human history.

Third, Chinese women recognize that the more attractive they find their face, body, skin, and fashion, the higher their self-esteem, and their rankings are in the order of face, skin, body, and fashion. In addition, they recognize that the more attractive they find their faces, bodies, skin, and fashion, the higher their self-efficacy, and they believe if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gets improved,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ould also get better. This illustrates the reason why they make efforts to make themselves physically beautiful and attractive is to boost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 their increased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eir psychology of wanting to keep their confidence high and feeling relative superiority plays out in social life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urth, though Chinese women recognize that their innate physical attractiveness factors have a greater influence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an acquired factors, the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makeup, cosmetic surgery, and fashion on self-esteem. This means that they recognize the factors that form their own beauty and body attractiveness by dividing them into innate and acquired, but they do not distinguish between their own beauty and the effects of their body attractiveness. In other words, Chinese women basically recognize that innate beauty is a condition for

women's beauty and charm, but they are aware that they can also develop beauty and body charm through beauty care behaviors such as acquired makeup and beauty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cosmetic surgery. Another meaning of this is that Chinese women have expectations for their future and are managing themselves with confidence to compensate for and overcome their shortcomings.

On the other hand, Chinese women recognize that cosmetic plastic surgery is a better way to strengthen body attractiveness than makeup or fashion,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body attractiveness according to whether one's body attractiveness is innate or acquired, and of its influence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t is recognized that innate factors are more influential than acquired, bu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women aged 56 to 60 years old perceive physical attractiveness more than young women aged 20 to 25 years old, and divorced women rather than married. Married rather than unmarried, and divorced rather than married women perceive physical attractiveness more acutely. In addition, the higher the standard of living, the high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taller and slimmer the body, the greater the perception of body attractiveness according to one's body type satisfaction. In addition, women who are more likely to lose weight have a greater perception of body attractiveness. In terms of self-esteem, women who are divorced rather than unmarried, who have relatively better jobs, who are having higher living standards,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s, who are not too slim, and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body have a higher level of self-esteem. As regards self-efficacy, a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can be found in

the women who are divorced than unmarried or married, who live in large cities rath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r living in rural or mountain villages rather than in urban areas, who have higher positions in relatively good jobs, who maintain higher living standards, and who are slimmer and easier to lose weight.

Fifth, the more Chinese women perceive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the more active thei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s. Furthermore, the more attractive their face and fashion are than their hair, the more active thei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gets, which means that they value the charm of their face the most among body care elements, and facial care is most highly regarded in thei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addition, women with a relatively lower level of facial attractiveness show a sense of attractiveness through fashion. Also, as Chinese women's appearance management priorities appeared in the order of fashion, face, and hair, it was found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fashion as well as face and hair. Women's interest in fashion is a common concern for women along with interest in beauty. Chinese women have differen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o strengthen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depending on their beauty and perception of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and their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limitations are also different. Women who perceived that their hair was attractive were more active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steem and self-efficacy had the effect of controlling hair attractiveness. This suggests that hair accounts for the proportion of Chinese women in expressing their beauty and giving off body charm. On the other hand, most

Chinese women are more active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f they believe they have a greater degree of body attractiveness, and the higher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e more active they exhibit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n academic significance that may provide survey data that has not been studied thus far, and will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trategies for the beauty and related industries.

【Keywords】 Body attractiveness, Self-esteem, Self-efficac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감사의 글

이 논문을 끝까지 열심히 완성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주신 논문심사 위원 전 중찬 교수님, 권오혁 교수님, 서구원 교수님, 서인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여의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매일 논문을 지도해주신 나의 박사과정 지도교수 명광주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중복연구는 기회비용 낭비라는 지도교수님 말씀 때문에 맨 처음 연구주제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그것마저도 많은 선행 연구논문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논문작성에 열중하던 한 여름 어느날 컴퓨터 관리를 잘못하여 수개월을 썼던 서론과 이론적 배경 부분 모두를 날려 보내고 며칠 밤낮을 울면서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해야 했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하루 한 두 페이지를 열심히 써서 지도교수님께 보여드리면 1/3 정도로 압축시켜서 다시 써야 했고, 서툰 한글 실력으로 인해 몇 줄도 되지 않는 문장을 수십 번씩이나 다시 바꿔 써야 해서 논문작성 진도가 나가지 않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를 날려 보냈던 까닭에 1개월 반이 넘도록 썼던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던 일, 참고문헌을 다시 찾아서 써넣는 일 등 논문작성 과정에 있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힘든 과정을 거쳤기에 내 논문이 더욱 소중하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부족하나마 박사학위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마친다.

매우 기쁘다. 그러나 실감이 나지 않는다. 힘겹게 달려온 시간동안 뜨겁게 달궈졌던 머리를 잠시 식히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생각이다.

앞으로 나는 나의 모국, 중국의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생각이다. 나의 미래가 기대되기에 가슴이 마구 뛰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한성대학교 대학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 박사과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부모님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논문을 바친다.

2021년 12월 5일

마 소 욱

致 谢

在我们的生命中,时间总是如白驹过隙,转身之后,已是似水流年。

生命中亦有太多感恩,却总是不知该如何表达。

感谢明光周教授,一路以来对我的孜孜不倦的教诲,真诚的感谢您为我这个懵懂的学生所付出的一切心血,学生将永远铭记于心。同时,也要感谢全聪灿教授,权五赫教授,徐求源教授,徐仁淑教授。感谢您们对学生的指导和鼓励。

接着,要感谢我身边的所有同伴,不论前辈们还是后辈们,感谢你们所给予我的感动,作为外国留学生,当我无助、低落、彷徨的时刻,是你们陪伴在我左右,不断鼓励支持我继续前进,分离的这一天,愿我们的情谊长存。

然后,要感谢所有参与我研究调查的朋友们,没有你们,我无法顺利完成我的学业。感谢你们抽出自己的宝贵时间,感谢你们不计回报的支持我。在论文完成之际,怀着感恩的心愿你们健康快乐。

最后,要感谢我的家人们,是你们义无反顾的支持我在求学的道路上前行,是你们给我最温暖的怀抱,是你们包容我的所有,你们永远是我生命中最爱的家人!

2021 年即将结束,回往过去的三年里,有两年多是新冠病毒疫情,因为国际地域隔离,我不能回国不能回家,在异国他乡努力的活着,努力的学习着,最终一切的艰难险阻,一起的努力都没有白费,我终于完成了学业。这注定是不平凡的一年,毕业不是我学业的结束,而是我未来目标新的开始,我将继续努力,为自己为家人为社会作出力所能及的贡献。感恩一切!

马晓旭 写于:2021 年 12 月 5 日